

제4편

부 록

1. 2017년 군정일지
2. 역대 군수(구청장) 명단
3. 울주군의회 의원 명단
4. 역대 부군수(부구청장) 명단
5. 간부공무원 명단
6. 행정기구표
7. 읍·면 자연마을 현황
8.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9. 언론보도



1. 2017년 군정일지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1.	2.	시무식	3층 회의실	총 무 과
	5.	신년인사회	UNIST 경동홀	총 무 과
	6.	제8 울주군수배 전국 중학교 축구 스토브리그	간절곶스포츠파크, 온산운동장	교 육 체 육 과
	11.	농업인 실용교육 시행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시설 및 현장	농 업 정 책 과
	17.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제14차 정기총회	울주군 중소기업 서비스센터	지 역 경 제 과
	20.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세무1과	세 무 1 과
	20.	설 명절 군부대 장병과 울주 경찰서 의경 격려	7765부대 및 울주경찰서	총 무 과
	20.	롯데삼당복지 재단 봉사단체 연계 소외계층 물품 지원 사업 협약식	2층 상황실	생 활 지 원 과
	25.	언양읍 청사 건립 기공식	구 언양읍청사	창 조 시 설 과
	26.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및 장보기 행사	언양알프스	지 역 경 제 과
	27. ~ 31.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각 부서	총 무 과
	1. ~ 7.	주민과의 대화	각 읍면	총 무 과
	7.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 워크숍	유니스트 경동홀	생 활 지 원 과
2.	9.	공약사항 추진보고회	2층 상황실	기 획 예 산 실
	10.	제1회 생활 보장 위원회 심의회	2층 상황실	사 회 복 지 과
	11.	울주 달맞이 대축제	범서읍 점촌교	문 화 관 광 과
	15.	울주군 군립 도서관 운영위원회	선바위도서관	도 서 관 과
	16.	울주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웅촌면사무소	지 역 경 제 과
	17.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기공식	서생 진하해변길	창 조 시 설 과
	20	제1차 정책자문단 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 획 예 산 실
	20. ~ 6. 30.	울산옹기박물관 기획전시 "세계도기특별전"	울산옹기박물관	문 화 관 광 과
	21.	언양읍 서부1리 경로당 준공식	언양읍서부1리 경로당	사 회 복 지 과
	22.	방사능 방재 요원 발대식	3층 대회의실	원 전 정 책 과
	23.	신청사 디자인 및 전시관 계획안 보고회	2층 상황실	창 조 시 설 과

일 자		주요 행사 및 시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25.	울주3040 부모공감 콘서트	울주군국민체육센터	교 육 체 육 과
	27.	군민의 날 추진 위원회	2층 상황실	총 무 과
	28.	공무직 대상 군수 특강	3층 대회의실	총 무 과
3.	1.	울주군 제98주년 3·1절 기념식	언양읍 남천교 앞	생 활 지 원 과
	8.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회	북합웰컴센터	문 화 관 광 과
	14.	울주군민상 심사위원회 1차 회의	2층 상황실	총 무 과
	15.	태화강 생태관 연어 방류 행사	선바위교 아래	축 수 산 과
	15.	울주 경관계획 중간보고회	2층 상황실	건 축 과
	16.	공약 이행 평가단 위촉식	2층 상황실	기 획 예 산 실
	16.	삼남면 신청사 개청식	삼남면 신청사 광장	회 계 정 보 과
	17.	제72회 식목일 기념 군민 나무 심기 행사	청량면 상남리 산38-1번지	산 림 공 원 과
	22.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협약식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지 역 경 제 과
	23.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의회	2층 상황실	건 축 과
	25.	범서 굴화 체육시설 준공식	범서대교 하부	교 육 체 육 과
	27.	제1회 작천정 벚꽃축제(3. 27. ~ 4. 9.)	작천정 벚꽃길 일원	산 림 공 원 과
	28.	웅기축제 개막 기념 장 담그기 행사	웅기박물관	문 화 관 광 과
	30.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공식	온양 대운산 제3공영 주차장 앞	안 전 건 설 과
4.	3.	방역 방재단 발대식	보건소 주차장	보 건 과
	6. ~ 7.	4대폭력 예방 교육	3층 대회의실	여 성 가 족 과
	6.	주민과의 대화 1차 보고회	2층 상황실	총 무 과
	10	신청사 건립공사 상량식	신청사 본관 입구	창 조 시 설 과
	11.	웅기축제 추진계획 최종보고회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12.	울주 디자인 네트워크12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2층 상황실	건 축 과
	16.	울주군수기 배드민턴 대회	군민체육과	교 육 체 육 과
	18.	언양 다목적 공영주차장 준공식	언양읍 남부리 73	교 통 정 책 과
	20.	웅기축제 발전 세미나	3층 대회의실	문 화 관 광 과
	20. ~ 21.	중국 무석시 회의산구 우호교류 사절단 방문	생태관, 웰컴센터 등	총 무 과
	21.	태화강 연등축제 점등식	태화강둔치	문 화 관 광 과
	29. ~ 30.	제5회 울주군수배 전국원드서핑대회	진하해수욕장	교 육 체 육 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5.	4. ~ 5.	사전투표	각 사전투표소	총 무 과
	11.	제26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위원회 회의	2층 상황실	총 무 과
	12.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간담회	2층 상화실	총 무 과
	16.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2층 상황실	민 원 지 적 과
	17.	서생포왜성 종합 정비 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20.	제26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간절곶스포츠파크	총 무 과
	25.	울주 한 책 읽기 운동 ‘올해의 책’ 선포식	선바위도서관	도 서 관 과
	27. ~ 28.	제7회 반구대 산골 영화제	반구대 집청정	문 화 관 광 과
	28.	제10회 남창 웅기종기시장 한마음 축제	남창 웅기종기시장	지 역 경 제 과
	29.	우수시책 발표회	3층 회의실	기 획 예 산 실
	3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업무협약	2층 상황실	기 획 예 산 실
	31.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기공식	서생면 신암리 530-1	산업단지추진단
6.	2. ~ 10.	우호교류 협약 체결 관련 포르투갈 신트라시 방문	포르투갈 등	총 무 과
	3.	제7회 우시산국 축제	웅촌면 초천리 회야강둔치 일원	문 화 관 광 과
	7.	재정 신속 집행 부진부서 대책 보고회	2층 상황실	기 획 예 산 실
	11.	울주 지속 가능 발전 평생학습 체험대전	범서생활체육공원	교 육 체 육 과
	12.	진해해수욕장 협의회 개최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12.	지역 한우고기 먹는 날 행사	범서초등학교	축 수 산 과
	16.	규제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	2층 상황실	기 획 예 산 실
	19.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법인설립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23.	제26회 울주군민의 날 추진 위원회 회의	2층 상황실	총 무 과
	27.	삼남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식	소회의실	여 성 가 족 과
	30.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발대식	3층 대회의실	지 역 경 제 과
7.	4.	민선 6대 취임 3주년 기념 “삼삼 토크쇼”	3층 대회의실	총 무 과

일 자		주요 행사 및 시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6.	민선6대 취임 3주년 기념 배식봉사활동	서부노인복지관	사 회 복 지 과
	6.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울주문화예술회관	여 성 가 족 과
	7.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장기 한궁대회	울주군민체육관	사 회 복 지 과
	8.	멸치 후리 그물 당기기 재현행사	진하해수욕장 팔각정	문 화 관 광 과
	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생산물 울주 푸드뱅크마켓 기부행사	군청 본관 입구	지 역 경 제 과
	11.	입체영상관 관리 운영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능 나눔 특강	가족문화센터	생 활 지 원 과
	17.	울산옹기축제 평가보고회	2층 회의실	문 화 관 광 과
	28. ~ 29.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해수욕장	문 화 관 광 과
8.	4.	울주 진하해변축제	진하해수욕장	문 화 관 광 과
	5.	간절곶 오디세이트 발대식	간절곶 시계탑 광장	문 화 관 광 과
	5.	범서 선바위 하하 페스티벌	선바위교일원	문 화 관 광 과
	8.	울주군 경관계획 주민공청회	3층 회의실	건 축 과
	9.	생활개선회 울주군 연합회 지도력 배양 워크숍 (군수 특강)	연양 63뷔페	농 업 정 책 과
	11.	하계 과학영재 멘토링 수료식	유니스트 2층대강당	교 육 체 육 과
	10.	온양읍 착한가게 단체가입식	온양문화복지센터	사 회 복 지 과
	12.	간절곶 해오름 가요제	간절곶시계탑 광장	문 화 관 광 과
	17.	군수와 함께하는 1일 사서 체험	선바위도서관	총 무 과
	17.	2017년산 "울주배" 미국 수출 환송행사	울산원예농협	농 업 정 책 과
	19.	제6회 울주JC 어린이 독서 골든벨 개최식	유니스트 실내체육관	도 서 관 과
	20.	8·15광복기념 제19회 온산읍 체육회장기 축구 대회	온산운동장	교 육 체 육 과
	21. ~ 24.	을지연습 실시		원 전 정 책 과
	21.	을지연습 최초상황 보고	3층 상황실	원 전 정 책 과
	21.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상황 보고회	소회의실	산업단지추진단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22.	울주 선바위도서관 독서광 조형물 제막식	선바위도서관 누리마당	도 서 관 과
	22.	성실납세자 경품 전자 추첨	세무1과	세 무 1 과
	23.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식기자회견	울산시청 한국프레스센터(서울)	문 화 관 광 과
	26.	울산연주인상 시상 및 제3회 시 낭송 콘서트의 밤	삼동 경관암	문 화 관 광 과
	30.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회	북합웰컴센터	문 화 관 광 과
9.	5.	공직자 지방분권 강연	3층 대회의실	기 획 예 산 실
	7.	신바람 청춘 노인대학 개강식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사 회 복 지 과
	8.	제18회 이장 한마음 전진대회	두서화랑체육공원	총 무 과
	9.	울주 청소년 건강걷기대회	북합웰컴센터	교 육 체 육 과
	13.	영남알프스 산악 영상문화센터건립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2층 상황실	창 조 시 설 과
	13.	범서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군수 특강	범서고 체육관	문 화 관 광 과
	14:00	축사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연양 축산회관	축 수 산 과
	14.	2017년 소극 행정 및 적극행정 공무원 사례 교육	3층 대회의실	총 무 과
	14.	청량 울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기공식	청량읍 울리	도 로 과
	15.	대곡천 반구대 축제 개막식	반구대암각화	문 화 관 광 과
	16.	울주 3040부모 공감 콘서트	울주군민체육센터	교 육 체 육 과
	16.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자원활동가 발대식 및 교육	북합웰컴센터	문 화 관 광 과
	18.	제18기 민주평통 울주군 협의회 출범식	3층 대회의실	총 무 과
	18.	제36차 울주군 기관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	2층 상황실	총 무 과
	19.	사회복지시설 추석맞이 위문	연화노인용양원 등	사 회 복 지 과
	19.	북합웰컴센터 일원 야간조명 점등식	등억온천지구	문 화 관 광 과
	20.	간월사지 보호각 건립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20.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전통시장 살리기 온누리 상품권 전달	소회의실	지 역 경 제 과
	20.	보훈단체 간담회 및 추석맞이 위문품 전달	2층 상황실	사 회 복 지 과

일 자		주요 행사 및 시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20.	울산 현대 축구단과 함께하는 k리그 울주군 DAY	문수축구경기장	교 육 체 육 과
	21. 25.	제2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북합웰컴센터	문 화 관 광 과
	21.	치매 안심마을 시범사업 협약식 및 현판식	두서면사무소	보 건 과
	23.	울주 오디세이	신불산 간월재	문 화 관 광 과
	25.	제2회 울주 세계산악 영화제 폐막식	북합웰컴센터	문 화 관 광 과
	25.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금융 지원 업무협약식	2층 상황실	산업단지추진단
	25.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	군청 광장	농 업 정 책 과
	26.	“울주배” 중남미(브라질) 한국 최초 수출 환송행사	울산원예농협 울리 사업소	농 업 정 책 과
	27.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 군수 특강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총 무 과
	27.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및 장보기 행사	연암알프스시장	지 역 경 제 과
	28.	추석 명절 무기계약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격려	소회의실	총 무 과
	29.	추석 명절 군부대 및 의경 격려	7765부대 및 울주경찰서	총 무 과
10.	10.	반천 현대아파트 수해분석 용역 중간보고회	2층 상황실	안 전 건 설 과
	11.	제3회 울주군 농업인 축제	범서생활체육공원	농 업 정 책 과
	11.	EBS 모여라 덩동덩 공개방송	북합웰컴센터	문 화 관 광 과
	13.	울주군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식	2층 상황실	총 무 과
	13.	제1회 외고산 전통옹기가마 체험캠프 개막식	외고산 옹기마을	문 화 관 광 과
	13.	사단법인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창립총회 개최	3층 회의실	문 화 관 광 과
	14.	제2회 친환경 울주 나눔 장터	범서생활체육공원	생 태 환 경 과
	14.	봉계한우불고기축제 개막식	봉계한우불고기특구	축 수 산 과
	16.	하반기 공무원 친절교육	3층 대회의실	민 원 지 적 과
	20.	제16회 전화영화제	두서	문 화 관 광 과
	21.	울주 독서 한마당	범서생활체육공원	도 서 관 과
	21.	연암읍성 민속놀이마당	연암읍성 북문지	문 화 관 광 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24.	울주군 장애인 희망누리 축제	범서생활체육공원	사 회 복 지 과
	24.	작래천 친수하천 조성공사 준공식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안 전 건 설 과
	26.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확정 증서 전달	2층 상황실	여 성 가 족 과
	27.	행복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축제 및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개관식	남부종합복지관	사 회 복 지 과
	28.	충숙공 이예선생 추모향제	석계서원	문 화 관 광 과
	28.	언양 알프스시장 한마음 대축제	언양알프스시장	지 역 경 제 과
	29.	울주군 자율방범대 한마음 건진대회 개최	온양체육공원	총 무 과
	31.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울주군 지회 6.25 참전기념비 추모식	두서화랑체육공원	생 활 지 원 과
11.	1.	대한민국 한우고기 먹는 날 행사	군청 광장	축 수 산 과
	4.	민주평통 포럼 회원과 함께하는 통일 견학	통영 등	총 무 과
	8.	한국 자유총연맹 울주군지회 한마음 대회	삼동면민체육관	총 무 과
	9.	보훈 4단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언양63뷔페	생 활 지 원 과
	10.	제8기 군민감사관 위촉식	2층 상황실	기 획 예 산 실
	10.	영남알프스 번개맨 우주센터 개관식	복합웰컴센터	문 화 관 광 과
	13.	복합웰컴센터 일원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14.	공공 비축미곡 건조벼 첫 수매	상북면 신리마을회관	농 업 정 책 과
	14.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용역 최종보고회	2층 상황실	농 업 정 책 과
	15.	바르게 살기 의식 함양 및 다짐대회 개최	문경새재 등	총 무 과
	15.	숲 가꾸기 행사	청량면 일원	산 림 공 원 과
	16.	청사 소방훈련 실시	본관 입구	회 계 정 보 과
	22.	우량 송아지 생산 단지 조성 사업 MOU 체결	2층 상황실	축 수 산 과
	23.	새마을운동 국민 독서 경진대회	범서읍사무소	총 무 과
	24.	온덕 1, 2리 공영주차장 준공식	온덕 1, 2리 공영주차장	교 통 정 책 과
	24.	온양읍 청사 개청식	온양읍청사	회 계 정 보 과

일 자		주요 행사 및 시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25	서부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혁신사업 학습발표회	서부노인복지회관	사 회 복 지 과
	25	장애 이해 축제 “오픈하우스”	울주군장애인복지관	사 회 복 지 과
	26	북한이탈주민 공감 토크	북합웰컴센터	총 무 과
	27	2018 간절곶 해맞이 행사 추진 협의 개최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27	울주정명천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개최	2층 상황실	총 무 과
	30	새마을 운동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알뜰장터 개장	온산 덕신 소공원	총 무 과
12.	2.	울주군 자원봉사 대축제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생 활 지 원 과
	5.	민원친절 작은 축제	민원봉사실	민 원 지 적 과
	6.	주민과의 대화 및 이동군수실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회	2층 상황실	총 무 과
	8.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	본청 현관 앞	생 활 지 원 과
	12.	제9회 울주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울주문화예술회관	총 무 과
	12.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발대식	3층 대회의실	산 림 공 원 과
	12.	행복케이블카설치 추진위원회 발대식	언양63뷔페	문 화 관 광 과
	18.	2018 간절곶 해맞이 최종보고회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18.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층 상황실	안 전 건 설 과
	22.	문화재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보고회	2층 상황실	문 화 관 광 과
	22.	신청사 이사 기념행사 개최	신청사 입구	회 계 정 보 과
	22. ~ 25.	신청사 이사		회 계 정 보 과
	26.	모범 개업 공인중개사 명패 수여	7층 이화홀	민 원 지 적 과
	28.	부군수 이임식	신청사1층 문수홀	총 무 과
	28.	청량 화창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기공식	청량면 상남리 일원	안 전 건 설 과
	29.	종무식	1층 알프스홀	총 무 과
	31. ~ 18. 1. 1.	2018년 간절곶 해맞이 행사	서생 간절곶 일원	문 화 관 광 과

2. 역대 군수(구청장) 명단

대 순	성 명	부 임 년 월 일	전 임 년 월 일	재 직 기 간
1	최 동 용	1945. 10. 24.	1946. 11. 17.	1년
2	유 태 경	1946. 11. 18.	1947. 3. 31.	4월
3	오 주 석	1947. 4. 1.	1949. 6. 20.	2년 2월
4	이 박 규	1949. 6. 21.	1950. 5. 5.	10월
5	박 재 현	1950. 5. 6.	1950. 7. 22.	2월
6	강 병 수	1950. 7. 23.	1951. 8. 31.	1년 1월
7	이 회 득	1951. 10. 5.	1953. 1. 5.	1년 3월
8	김 인 제	1953. 1. 6.	1953. 7. 6.	6월
9	이 백 순	1953. 7. 7.	1954. 12. 1.	1년 4월
10	김 극 수	1954. 12. 2.	1956. 11. 5.	1년 11월
11	장 병 구	1956. 11. 6.	1957. 4. 28.	6월
12	서 석 지	1957. 5. 30.	1958. 3. 14.	9월
13	조 창 제	1958. 3. 15.	1960. 5. 24.	2년 2월
14	윤 덕 병	1960. 5. 25.	1960. 9. 13.	1년 3월
15	경 명 철	1960. 11. 29.	1961. 6. 17.	7월
16	김 철 년	1961. 6. 18.	1962. 11. 11.	1년 4월
17	김 현 규	1962. 11. 12.	1964. 1. 31.	1년 2월
18	김 종 구	1964. 2. 1.	1965. 3. 31.	1년 2월
19	이 진 섭	1965. 4. 1.	1966. 9. 30.	1년 6월
20	이 태 수	1966. 10. 1.	1968. 4. 28.	1년 7월
21	한 형 구	1968. 5. 1.	1971. 8. 20.	3년 3월
22	박 용 범	1971. 8. 21.	1973. 6. 30.	1년 10월
23	한 영 규	1973. 7. 1.	1974. 4. 22.	9월
24	한 형 구	1974. 4. 23.	1974. 12. 31.	8월
25	황 길 태	1975. 1. 1.	1976. 3. 30.	1년 3월
26	김 영 환	1976. 4. 1.	1978. 8. 1.	2년 4월
27	조 상 래	1978. 8. 2.	1979. 10. 15.	1년 2월
28	조 규 섭	1979. 10. 16.	1980. 3. 16.	5월
29	황 대 영	1980. 3. 17.	1981. 12. 22.	1년 9월
30	박 필 용	1981. 12. 23.	1983. 4. 13.	1년 3월
31	손 태 병	1983. 4. 14.	1985. 3. 10.	1년 11월
32	김 종 학	1985. 3. 11.	1986. 2. 27.	11월
33	박 지 근	1986. 3. 8.	1988. 6. 10.	2년 3월

대 순	성 명	부 임 년 월 일	전 임 년 월 일	재 직 기 간
34	이 승 관	1988. 6. 11.	1989. 12. 26.	1년 6월
35	김 명 규	1989. 12. 27.	1992. 4. 22.	1년 4월
36	김 진 백	1992. 4. 23.	1993. 3. 28.	11월
37	황 기 준	1993. 3. 29.	1993. 12. 20.	9월
38	김 수 영	1994. 1. 3.	1994. 12. 31.	1년

i 울주구청장 및 군수

대 순	성 명	부 임 년 월 일	전 임 년 월 일	재 직 기 간
1	배 경 석	1995. 1. 1.	1996. 3. 1.	1년 2월
2	손 달 인	1996. 3. 2.	1997. 6. 30.	1년 4월
군수직무대행	허 선 호	1997. 7. 15.	1998. 6. 30.	1년

i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선군수

대 순	성 명	부 임 년 월 일	전 임 년 월 일	재 직 기 간
초대민선군수	박 진 구	1998. 7. 1.	2002. 6. 30.	4년
민선2대 군수	엄 창 섭	2002. 7. 1.	2006. 6. 30.	4년
민선3대 군수	엄 창 섭	2006. 7. 1.	2008. 9. 25.	2년 3월
민선4대 군수	신 장 열	2008. 10. 30.	2010. 6. 30.	1년 8월
민선5대 군수	신 장 열	2010. 7. 1.	2014. 6. 30.	4년
민선6대 군수	신 장 열	2014. 7. 1.	현재	

3. 울주군의회 의원명단

의 원		생 년 월 일	선 거 구
구 분	성 명		
의 장	한성울	1952. 10. 5.	가선거구
부 의 장	권영호	1958. 12. 26.	다선거구

의 원		생 년 월 일	선 거 구
구 분	성 명		
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1960. 12. 13.	나선거구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1952. 2. 1.	가선거구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1963. 7. 7.	다선거구
의원	이동철	1955. 4. 12.	가선거구
의원	박기선	1964. 8. 20.	나선거구
의원	김민식	1965. 8. 15.	나선거구
의원	조충제	1966. 2. 9.	다선거구
의원	정수진	1968. 2. 20.	비례대표

※ 가 선거구 : 온산, 온양, 서생, 나 선거구 : 범서, 청량, 웅촌, 다 선거구 : 연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4. 역대 부군수(부구청장) 명단

대 순	성 명	부 임 년 월 일	전 임 년 월 일	재 직 기 간	비 고
1	허 완	1975. 1. 10.	1976. 3. 31.	2년 3월	
2	김 형 기	1976. 4. 1.	1978. 5. 19.	2년 2월	
3	정 임 준	1978. 5. 20.	1981. 9. 30.	3년 4월	
4	최 상 향	1981. 10. 1.	1982. 11. 3.	1년 1월	
5	김 은 석	1982. 11. 4.	1987. 9. 22.	4년 10월	
6	김 태 일	1987. 9. 23.	1991. 9. 30.	4년	
7	윤 중 진	1991. 10. 1.	1993. 6. 18.	1년 9월	
8	장 병 한	1993. 6. 19.	1994. 9. 30.	1년 3월	
9	서 진 철	1994. 10. 17.	1994. 12. 31.	2월	
10	한 용 규	1995. 1. 1.	1995. 1. 24.	1월	부구청장
11	김 장 옥	1995. 1. 25.	1995. 7. 24.	6월	〃
12	이 수 길	1995. 8. 4.	1997. 1. 28.	1년 6월	〃
13	이 철 호	1997. 1. 29.	1997. 7. 14.	6월	〃
14	허 선 호	1997. 7. 15.	1998. 9. 25.	1년 2월	군수직무대행 '97. 7. 15. ~ '98. 6. 30.
15	유 병 래	1998. 9. 26.	2000. 1. 23.	1년 4월	
16	심 부 용	2000. 1. 24.	2001. 1. 8.	1년	

대 순	성 명	부 임 년 월 일	전 임 년 월 일	재 직 기 간	비 고
17	최 문 규	2001. 1. 9.	2002. 7. 30.	1년 7월	
18	유 병 래	2002. 8. 1.	2003. 7. 7.	11월	
19	허 종 생	2003. 7. 8.	2005. 1. 26.	1년 7월	
20	이 성 섭	2005. 1. 27.	2005. 12. 31.	1년	
21	이 선 범	2006. 1. 12.	2007. 6. 29.	1년 6월	
22	신 장 열	2007. 7. 20.	2008. 9. 30.	1년 2월	
23	박 정 식	2008. 10. 2.	2009. 12. 31.	1년 2월	
24	이 효 재	2010. 1. 8.	2011. 1. 31.	1년	
25	허 만 영	2011. 2. 2.	2012. 7. 2.	1년 5월	
26	전 병 수	2012. 7. 3.	2013. 6. 30.	1년	
27	한 진 규	2013. 7. 3.	2015. 12. 31.	1년 6월	
28	장 한 연	2016. 1. 1.	2016. 12. 31.	1년	
29	이 경 걸	2017. 1. 1.	2017. 12. 31.	1년	

5. 간부공무원 명단

가. 본 청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보직일자
군 수	정 무 직	신 장 열	1952. 9. 16.	
부 군 수	지방부이사관	이 경 걸	1958. 11. 8.	2017. 1. 1.
행정지원국장	지 방 서 기 관	이 춘 근	1959. 9. 3.	2015. 7. 1.
복지교육국장	지 방 서 기 관	임 덕 철	1960. 12. 10.	2017. 1. 1.
경제산업국장	지 방 서 기 관	최 재 전	1959. 1. 5.	2017. 1. 1.
도시환경국장	지 방 서 기 관	우 하 용	1959. 10. 3.	2017. 7. 1.
건설교통국장	지방기술서기관	하 상 조	1959. 10. 29.	2017. 7. 1.
기획예산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안 효 신	1961. 6. 9.	2017. 7. 1.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보직일자
행정지원국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수	1960. 2. 1.	2017. 1. 1.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경례	1970. 2. 13.	2017. 1. 1.
	회계정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성욱	1960. 3. 23.	2017. 7. 1.
	세무1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상조	1960. 5. 5.	2017. 1. 1.
	세무2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학춘	1959. 12. 15.	2017. 7. 1.
	민원지적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서상달	1962. 1. 2.	2017. 1. 1.
복지교육국	생활지원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효준	1967. 6. 5.	2017. 9. 1.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철봉	1961. 3. 20.	2017. 9. 1.
	여성가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봉대	1961. 4. 13.	2017. 1. 1.
	교육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미혜	1971. 9. 1.	2017. 7. 1.
	도서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동렬	1961. 4. 22.	2017. 7. 1.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일	1960. 12. 14.	2017. 1. 1.
	원전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갑식	1964. 8. 22.	2017. 7. 1.
	농업정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최병훈	1965. 12. 30.	2017. 7. 1.
	축수산과장	지방농업사무관	박성화	1960. 9. 22.	2017. 1. 1.
	산림공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박도원	1959. 10. 18.	2016. 7. 1.
	산업단지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유석	1963. 11. 11.	2017. 7. 1.
도시환경국	도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재문	1960. 7. 11.	2017. 7. 1.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상민	1967. 5. 12.	2017. 1. 1.
	생태환경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이훈환	1959. 10. 30.	2014. 8. 7.
	안전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성보	1962. 11. 10.	2017. 7. 1.
건설교통국	안전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홍식	1959. 7. 9.	2017. 7. 1.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종인	1962. 8. 16.	2016. 1. 1.
	교통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노제	1959. 8. 13.	2017. 7. 1.
	창조시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장경석	1960. 6. 28.	2015. 1. 1.

나. 읍 면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보직일자
범 서 읍 장	지 방 서 기 관	곽 인 철	1960. 1. 2.	2017. 1. 1.
온 산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용 덕	1960. 11. 27.	2017. 7. 1.
연 양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신 종 한	1960. 3. 27.	2017. 9. 1.
온 양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동 술	1961. 1. 15.	2017. 7. 1.
서 생 면 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손 성 익	1958. 7. 15.	2015. 1. 1.
청 량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공 열	1965. 10. 23.	2017. 7. 1.
웅 촌 면 장	지방농업사무관	구 용 태	1960. 5. 15.	2017. 7. 1.
두 동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성 우	1962. 2. 21.	2017. 7. 1.
두 서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해 대	1959. 8. 16.	2016. 7. 1.
상 북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변 희 석	1960. 2. 5.	2016. 7. 1.
삼 남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오 세 윤	1961. 6. 27.	2017. 7. 1.
삼 동 면 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원 조	1960. 3. 10.	2017.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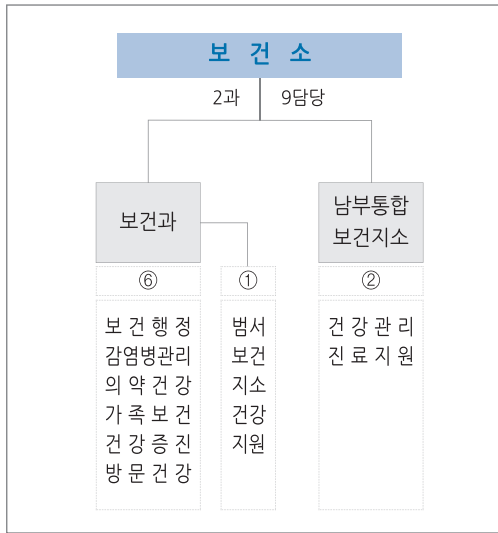
다. 의회 · 보건소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보직일자
의 회 사 무 국 장	지 방 서 기 관	손 영 순	1960. 1. 7.	2017. 7. 1.
전 문 위 원	지 방 행 정 사 무 관	김 용 완	1964. 1. 15.	2017. 7. 1.
전 문 위 원	지 방 농 업 사 무 관	장 명 기	1964. 1. 5.	2017. 1. 1.
보 건 소 장	지 방 기 술 서 기 관	최 우 영	1961. 5. 3.	2017. 1. 1.
보 건 과 장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이 영 숙	1961. 3. 9.	2016. 7. 1.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 방 보 건 사 무 관	김 동 숙	1962. 12. 1.	2017.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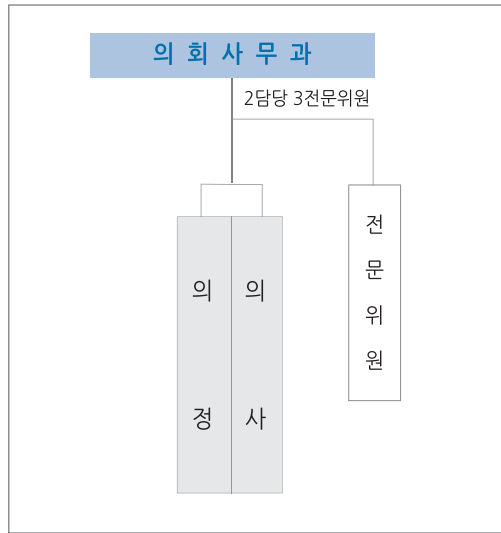
읍·면 : 57담당 / 232명

읍면	계	범서	온산	언양	온양	서생	청량	웅촌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담당	53	7	5	5	6	4	4	4	4	4	4	5	3
경원	222	34	22	25	24	16	17	15	14	14	15	18	13

ii 직속기관



ii 의회사무국



7. 읍·면 자연마을 현황

읍면별	면적 (km ²)	가 구	인 구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법 정 리 명
4읍8면	757.4	89,485	220,718	118 (364)	460 (1,989)	
범 서 읍	77.1	24,584	74,037	10 (68)	62 (620)	서사, 척과, 두산, 구영, 중리 망성, 사연, 입암, 천상, 굴화
온 산 읍	39.7	10,858	23,330	13 (38)	14 (139)	당월, 우봉, 가양, 삼평, 원산 대경, 이진, 화산, 덕신, 산암 방도, 차용, 학남
연 양 읍	68.7	10,757	26,687	15 (39)	42 (271)	송대, 서부, 동부, 남부, 어음 반송, 구수, 반천, 반연, 대곡 반곡, 평기, 다개, 태기, 직동
온 양 읍	63.9	10,442	26,171	10 (41)	46 (255)	남창, 동상, 망양, 고산, 삼광 내광, 외광, 운화, 대안, 발리
서 생 면	36.9	4,336	8,904	10 (22)	25 (76)	신암, 명산, 화산, 위양, 용리 서생, 화경, 진하, 대송, 나사
청 량 면	60.0	7,155	17,209	9 (30)	49 (193)	상남, 개곡, 덕하, 문죽, 율리 삼경, 중리, 동천, 용암

읍면별	면적 (km)	가 구	인 구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법 정 리 명
웅 촌 면	52.0	3,800	7,997	9 (26)	26 (85)	곡천, 감단, 은현, 고연, 대대 초천, 통천, 석천, 대북
두 동 면	63.5	2,255	4,176	8 (15)	33 (42)	은편, 만화, 구미, 월평, 삼정 봉계, 천전, 이전
두 서 면	78.8	1,790	3,267	9 (17)	40 (42)	인보, 서하, 구량, 차리, 내와 복안, 활천, 미호, 전읍
상 북 면	123.4	3,976	8,475	13 (22)	58 (88)	산전, 지내, 향산, 천전, 등억알프스 명촌, 길천, 거리, 양등, 궁근정 소호, 덕현, 이천
삼 남 면	31.0	8,520	18,584	5 (30)	37 (153)	교동, 신화, 상천, 가천, 방기
삼 동 면	62.4	1,012	1,881	7 (16)	28 (25)	조일, 보은, 금곡, 하잠, 출강 작동, 둔기

8.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구 분	외국도시명	체결일자	교류종류
자 매 결 연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레피즈시	1987. 8. 19.	자매결연
	전 라 남 도 여 수 시	2009. 10. 29.	자매결연
우 호 협 력	중 국 판 진 시	2003. 2. 19.	의향서
	중 국 문 등 시	2001. 12. 14.	협정서
	중 국 래 서 시	2000. 7. 26.	협정서
	중 국 심 북 신 구	2003. 3. 21.	의향서
	중 국 해 림 시	2004. 9. 3.	의향서
	일 본 대 마 시	2005. 2. 1.	의향서
	포 르 투 갈 포 츠 코 아 시	2016. 7. 5.	의향서
스페인 살라망카시	2016. 11. 2.	의향서	교 류

울산신문

2017년 01월 16일 월요일 014면 사람



울주군은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자 32명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식을 가졌다.

울주군민 미래 책임질 '새내기 일꾼' 첫 발

울주군 신규공무원 32명 임용식 부모님 초청 감사 메시지 전달도

울산시 울주군의 미래를 책임질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 첫 발을 내딛었다. 울주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자 32명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식에서 신규 임용자들은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직의 보람을 가지고 훌륭한 공직자가 될 것을 선서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깊게 새겼다.

신장열 군수는 이 자리에서 "울주군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임용식에서는 공직자가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 준 부모님께 카네이션달기와 서로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규 임용된 정수주(여·28)씨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미소를 머금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옛 국도 31호선 일대 '관광도로' 조성 간절곶, 울산 랜드마크로 키운다

서생~명산삼거리 10km 구간 대상
간절곶에 해돋이 전시관·전망대
음악 도로·바다체험공간도 건립

울산시 울주군이 국도31호선 대체국도 신설로 서생지역 교통수요가 급감하고 상권이 고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국도31호선 일대를 간절곶 해맞이와 연계해 '관광도로'로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도로가 조성되면 전국 대표 해맞이명소인 간절곶과 함께 지역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은 12일 국도31호선 해안경관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내년 12월 국도31호선 대체국도가 신설되면 기존 국도31호선의 교통수요가 급감하고, 서생지역 상권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이 용역을 실시했다.

대상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서생삼거리에서 명산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이다.

군은 기존 국도31호선을 오는 2020년까지 도로의 매력을 극대화시킨 회소성 있는 관광도로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상도로 주변에는 진하해수욕장, 나사리해수욕장, 간절곶, 간절곶스포츠파크 등의 관광자원이 있고, 역사문화자원인 서생포대성곽과 만호진성, 나사불수대, 산입관광자원인 고리원전, 에너지융합산업단지(예정) 등이 위치하고 있다.



12일 울주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국도 31호선 해양경관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신장열 울주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울산과 부산, 포항 지역을 대상으로 당일치기 힐링(Healing) 관광, 해양스포츠투레 중심의 관광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박사는 해돋이전시관 및 전망대 설치, 관문경관(Gate), 음악도로, 바다체험공간, 복합지원시설 마련 등 간절곶 해맞이 등과 관련한 13개 사업을 추진해 관광도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업비는 354억 6천500만원을 예상했다.

우선 해맞이로 진입부에 관문경관 조형물을 설치해 인지도 상승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중심으로 간절곶공원 안에 해돋이전시관과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화정리와 신암리 일대에는 관광객 휴게 및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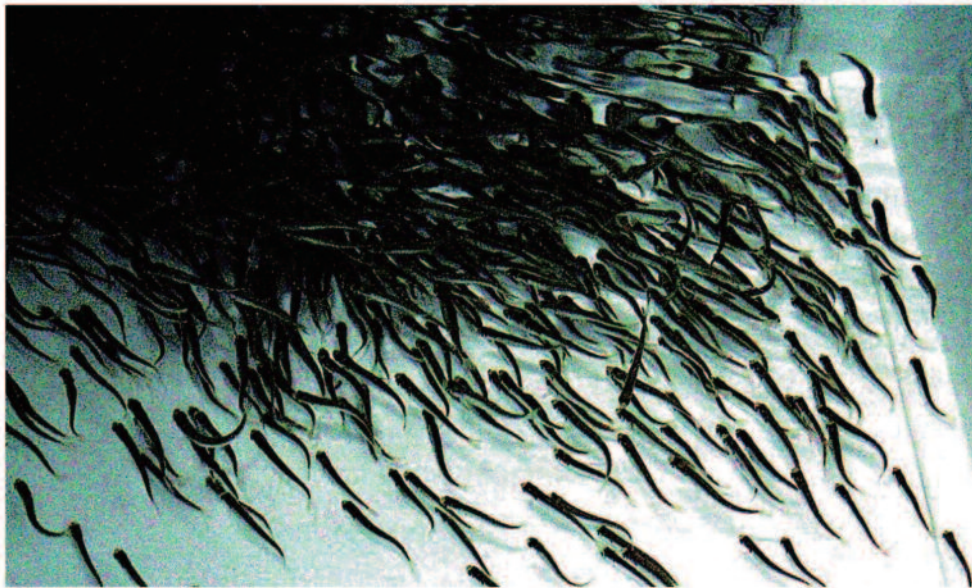
또 진하해수욕장과 간절곶공원, 대송리 일대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바다체험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평동길 입구에서부터 명산삼거리 400m 구간에는 도로 위에 흙을 만들어 자동차 타이어와의 마찰을 활용해 음악이 나오는 음악도로를 조성하자고 했다. 안전은 물론 관광기능도 행기겠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사업이 수립됐다"며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국도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관광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기자

울산매일

2017년 01월 31일 화요일 008면 종합



지난 29일 태화강에 회귀한 연어의 알을 울산에서 처음으로 인공부화하는 데 성공했다. 인공부화한 연어는 모두 2만7,000여마리에 이른다. 3cm가량 자란 어린 연어들이 태화강생태관 수족관을 헤엄치고 있다. 연합뉴스

태화강생태관, 회귀 연어 알 인공부화 성공

2만7,000여마리 3월 방류...배양장 갖춰 채란·부화·방류 등 전 과정 가능
그동안 밀양 민물고기연구센터서 부화...강원도 남대천산 치어 받아오기도

울산 울주군 태화강생태관이 태화강으로 회귀한 연어의 알을 자체 인공부화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태화강생태관에 따르면 지난해 태화강으로 돌아온 연어 120여 마리의 알을 배양장에서 인공수정한 후 배양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초께 먼저 부화한 어린 연어 2,000여 마리는 현재 3cm 정도로 자라 수로형 수조에서 방류를 앞두고 있다.

또 이 보다 늦게 부화한 2만5,000여 마리

는 부화기에서 자라는 중이다.

울주군은 어린 연어가 5~7cm 정도 자라는 3월에 태화강에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 후 빠르면 2019년부터 태화강에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는 그동안 배양장이 없어 태화강 어미 연어를 경남 밀양의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보내 부화했다.

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로부터 강원도 남대천산 어린 연어

를 받아 태화강에 방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문을 연 태화강생태관에 배양장을 갖춰 직접 인공부화에 나섰다. 이로 인해 태화강 연어의 '채란'에서 '부화', '방류'까지 전 과정이 울산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김나리 태화강생태관 해양수산연구사는 "부화기에 있는 어린 연어는 현재 난황(영양분으로 쓰이는 알주머니)을 지니고 있으며, 일찍 부화한 어린 연어는 먹이를 주는 단계"라며 "울산에서 태어난 연어가 방류된 후 다시 건강하게 태화강으로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usm.co.kr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빈집 정비' 지원조례 제정 추진

올해 1억5,000만원 들여 화재·붕괴 우려 30곳 직접 정비

울산지역 전체 빈집 370곳... 중구 186곳 최다·울주군 57곳
군, 지진·태풍 피해 등 정비 시급 판단... 대부분 관리상태 부실
15일까지 주민의견 접수... 3~4월께 조례 제정·공포 후 시행

울주군이 빈집에 취약하거나 화재·붕괴 위험이 큰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울산 지자체 최초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군은 조례가 시행되는대로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최대 30개의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2월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울산의 빈집 등 공·폐가는 370개소에 달한다.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주택 등 건물(공공주택 제외)이다.
구·군별로는 대규모 주택개발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구가 186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울주군이 57개소, 동구 49개소, 북구 43개소, 남구 35개소 순이다.
이 중 빈집 정비에 가장 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은 울주군.
지난해 7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에 이어, 9월에는 100년 만에 한 번 위풍불까한 태풍 차비의 피해까지 수습하면서 빈집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2016년 기준 울산 빈집 현황

중구	186개소
울주군	57개소
동구	49개소
북구	43개소
남구	35개소
합계	370개소

집 주인이 이사 가거나, 부모의 사망, 공장 폐업, 식당 이전 등으로 방치된 건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산·중축을 위해 건물을 쓰다가 폐기로 방치한 사례도 다량 있다. 규모가 큰 곳은 건물 연면적이 1,000~3,000㎡에 달한다.
문제는 관리상태가 대부분 부실하다는 점이다.

다.
관내 12개 읍·면별 빈집은 △은양 20개소 △은산 9개소 △사생 9개소 △정랑 6개소 △명서 5개소 △안양과 삼동 각각 3개소 △두동 2개소다.

이에 울주군은 지난해 2월 '빈집 정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군이 조례를 근거 삼아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조차 하지 않은 건물 등에서 '공역상 현저히 유해'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실제 이 조례안에는 군수가 미관용 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와 개축, 수리 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다면 군수가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의 경우, 군이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정비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4월께에 조례가 제정·공포 되는대로 빈집 정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빈집 3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예산 1억5,000만 원도 이미 확보해둔 상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산에서 빈집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건 우리 군이 최초지만, 전국에서는 이미 50여개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며 "오는 3~4월을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빈집 정비사업에 나서고, 올해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직접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hieje@nhan.com

울산신문

2017년 02월 10일 금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지역경제활성위해 1분기 5천억 푼다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 집중 투입
재해복구·간절공 공인 조정 추진

울산시 울주군이 조선평 불황 등의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 5,000억 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풀기로 했다.
바다를 친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기집행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렛대로 삼기 위한 처

방이다.
총 1조 원 규모의 울주군의 올해 예산 중 조기집행 대상은 8,750억 원이며, 이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5,077억 원을 상반기 내에 신속 집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주요 사업의 신속집행 재정 규모는 태풍 '차비'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총 320억 원 중 170억 원을 비롯해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 92억 원 중 51억 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891억 원 중 490억 원이다.
이와 함께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280억

원 중 154억 원, 청량 울리 도시개발사업 709억 원 중 387억 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70억 원 중 39억 원 등이 조기 집행된다.
특히, 이들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조기집행 예산은 상반기 내에서도 1분기 집행에 주력키로 하고, 연초부터 사업 발주 건수를 확대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울주군은 살림 규모가 큰데다 다년도에 걸친 사업이 많아 재정 조기집행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위축된 민간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신속집행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 신속집행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손영선 기획예산실장은 "오는 3월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시작으로,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집행현황을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경상일보

2017년 02월 20일 월요일 002면 종합

울주군 진하해변 해양레포츠 메카 된다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기공
체류형 관광체험시설 조성
250억 들어 내년 3월 완공
마리나항 장기적으로 추진

울산 울주군의 역점사업이자 해양 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울주 해양레포츠센터'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내년 봄이면 진하 해변에서 각종 해양레포츠를 만끽한 뒤 캠핑까지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울주군은 지난 17일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일원에서 신장열 군수와 바른정당 강길부(울주) 국회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군은 해양레포츠센터를 덩기요트와 윈드서핑, 서핑, 카약 등 각종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것은 물론, 요트·서핑보드 보관과 정비도 가능한 시설로 조성한다. 카페테리아와 숙소 및 강의실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기공식이 지난 17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공시현장에서 열렸다. 신장열 울주군수, 강길부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기공 시삽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에, 울산진하 PWA세계윈드서핑 대회 등 국제대회를 고려해 대형세미나실도 갖출 예정이다.

군은 체험시설과 캠핑장을 연계해 센터를 체류형 관광체험 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에서 진하해변의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바다바람정원 등을 만들고, 기존 송림을 최대한 활용해 16동의 오토캠핑존과 50동의 브리

덴트존도 만드는 등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면적 3만5200㎡의 센터에는 연면적 2525㎡의 3층 규모 해양레포츠센터 1동과, 1층 규모 편의시설 및 관리동 각 1동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원천지원금 104억원과 군비 140억원 등 총 250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신장열 군수는 "센터가 조성되면 해

양레포츠 수요층이 넓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양스포츠와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마리나항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주 해양레포츠센터는 지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15년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에 들어갔고, 지난달 17일부터는 이미 기초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준영기자

울산매일

2017년 02월 22일 수요일 008면 종합

70세 이상 어르신 요금 할인 '효 헤어샵' 확대

울주군 지정 업소, 최대 50% 할인

작년 30곳서 50곳으로 늘리기로

울산 울주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효 헤어샵'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상황실에서 '효 헤어샵' 추가 지정증 교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효 헤어샵'은 울주군 관내 미용인들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금을 20~50% 할인하는 사업이다.

사단법인 울주군미용사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지난해 8월부터 30개소가 시범운영 됐고 올해는 5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군은 효 헤어샵 지정업소의 참여 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해 우수업소에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군 관계자는 "효 헤어샵이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스터 제작 등 더 많은 홍보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22일 서울시장 시민청 대명에서 열린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2017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울산옹기축제가 축제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경걸 울주군 부군수가 차경현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장으로부터 대상 상패를 수여받고 있다.

울산옹기축제, 경제부문 콘텐츠대상 수상

"우수축제 나아가는 전환점 기대"

울산시 울주군은 사단법인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울산옹기축제가 축제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장 시민청 대명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경걸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해 차경현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장으로 부터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프로그램 연출부문 우수상을 수

상한 울주군은 이번 축제경제 부문 대상 수상을 통해 울산옹기축제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를 넘어 우수축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7회째를 맞는 2017 울산옹기축제는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국내 최대 옹기집산지인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개최된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울주, 군 단위 기초단체 재정·행정서비스 1위

(1위) (4위)

1조원 시대 개막 단탄한 재정자립도 스마일 운동 등 서비스 질적 향상 산악관광 인프라 확충도 좋은 평가

올해 당초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울산시 울주군의 살림살이와 행정서비스 경쟁력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 82개 군(郡) 단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력·행정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학회의 전문가 분석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만2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울주군은 재정력 1위, 행정서비스 4위의 우수한 점수를 받아 행정 전국 1위에 올랐다. 울주군에 이어 2위는 전북 완주, 3위 충북 진천, 4위 강원 정선, 5위 대구 달성, 6위 부산 기장, 7위 전남 영암, 8위 인천 옹진, 9위 경북 철곡, 10위 충북 증평 순으로 평가됐다.

사상 첫 재정 규모 1조원 시대를 연 울주군의 올해 당초예산은 1조525억원으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는 군 단위 평균 25.72%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49.69%로 탄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다.

또 직원 스마일 운동과 민원친절 작은 축제, 행정서비스 현장 발간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준공으로 한 산악관광 인프라 확충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일선 읍면의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과 국민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군정을 펼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등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명품도시 울주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울주군은 8일 서생면사무소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방사능방재단 출범식을 가졌다.

울주군, 전국최초 '민간 방사능방재단' 운영

원전지역 주민 등 100여명 긴급상황시 연락·대피유도

울산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민간 방사능방재단을 운영해 방사선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울주군은 8일 서생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민간방재단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방사능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은 기존의 행정 주도 방재는 동원성이 없고, 모든 준비를 관에서 맡는 만큼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통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방사능방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방사능방재단은 방사선 비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며, 주민 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또 평상시에는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주민 홍보와 방사능방재단 대비 주민보호조치 관련 정책 제안 등의 임무도 담당한다.

한영일 방재단장은 "원전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출현수범해 긴급상황 발생시 내 동네 내 이웃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울주군은 "민간 방사능방재단 운영으로 주민이 주축이 되는 능동적인 대피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방재단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봉기자 bong@ksilbo.co.kr

울산신문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015면 사람



울주군 삼남면 신청사 개청식이 16일 삼남면 작대들길2에서 열린 가운데 신장열 울주군수, 한성울 군의회 의장, 문시철 시의회 의장, 허연욱 행정부시장, 시·구의원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울주군, 89억 투입 삼남면 신청사 개청식

체력단련실·도서관 등 최신 시설

울산시 울주군은 16일 오후 삼남면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새 건물에서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울주군 삼남면 작대들길 2에 건립된 삼남면 신청사는 부지면적 8,365㎡에 연면적 2,805㎡,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면사무소, 2층에는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3층에는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 최신 시설로 총 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울주군 삼남면 중남로 64에 위치한 옛 청사는 1985년에 건립된 건물로 청사가 좁아 사무실이 1,2층으로 분리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개청식은 신장열 군수를 비롯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남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의 풍물놀이 및 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제막식,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식 등 면민들의 화합 및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건립중인 언양읍과 온양읍 신청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울산신문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007면 사회

대운천, 울주 남부권 최대 친수공간 만든다

대운산 입구~남창천 합류 7km
98억원 투입 하천정비사업 착공
치수기능 호안·수변심터 등 조성
내년 5월 완료 여름 휴양지 기대

울산 12경 중 하나인 대운산 계곡을 중심으로 한 대운천이 울주군 남부권의 대표 친수공간으로 거듭난다.

울산시 울주군은 30일 오후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제3공영주차장 앞에서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대운천 일원을 자연친화적인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기념한 이날 행사에는 신장열 군수와 한성울 군의회 의장, 시·군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편입부지 보상비 29억 원과 공사비 72억 원 등을 포함해 총 98억 원(국비 44억 원, 군비 54억 원)이 투입되는 대운천 정비사업은 대운산 입구에서 남창천 합류 부까지 총연장 7km 구간에서 진행된다.

공사구간인 대운천 상류는 급경사로

인해 매년 우기 때마다 비 피해를 입는 곳인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하천 재해예방 시설과 함께 생태·친수기능이 대폭 보강되면 울산의 대표 친수·휴양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치수기능을 갖춘 호안으로 말끔하게 정비되고, 여울식 나차보와 벽천, 다목적광장, 수변심터 등 다양한 친수시설이 조성된다.

울주군은 내년 5월 중순께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운산과 내원암 계곡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남부권의 아름다운 최

대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운산에서 발원한 대운천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계곡 뿐만 아니라 인근의 용마골, 진해해수욕장, 간절곶 등 관광지가 많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이정우 울주군 안전건설과장은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대운천은 울산 12경과 울주 8경 중 하나로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를 감양해 시공사와 우리나라 최고의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최성환기자 csh@



“울주군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공식” 이 30일 울주군 대운산 제3공영주차장 앞에서 열린 가운데 신장열 군수, 한성울 군의회 의장, 문시철 시의회장, 시·군의원 등 참석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옹기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개막 퍼포먼스 장 담그기 행사가 28일 울산옹기박물관에서 열린 가운데 신장열 울주군수와 이몽원 축제추진위원장, 조희만 옹기협회장 등이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생산된 옹기에 고추장을 담그고 있다.

‘제17회 울산옹기축제’ 5월 4일 개막

신 군수 등 개막 퍼포먼스용 고추장 담그며 성공 기원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선정된 울산옹기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장 담그기 행사가 28일 울산옹기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장열 울주군수와 이몽원 축제추진위원장, 조희만 옹기협회장 등이 참여해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생산한 옹기에 고추장을 담갔다.

이 고추장은 오는 5월4일 개최되는 ‘2017 울산옹기축제 개막 퍼포먼스’에서 사용된다.

신장열 군수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

하는 옹기마을에서 생산된 옹기에 직접 장을 담그고, 그 장을 옹기축제 개막행사 퍼포먼스에 사용한다고 하니 어느 때 보다 기대된다”며 “옹기 속에 담긴 장이 잘 발효돼 맛있게 익어 가듯 울산옹기축제도 잘 익어서 내년에는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울산옹기축제는 오는 5월4일부터 7일까지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개최된다. 외고산 전통옹기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 전시, 참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조혜정 기자

U 울산매일

2017년 4월 3일 월요일 012면 사람



울주군, 제1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식

신장열 울주군수, 김기현 시장, 윤시철 시의장, 한성울 군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1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식이 지난 1일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 벚꽃길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신장열 울주군수, 김기현 시장, 윤시철 시의장, 한성울 군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상일보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001면 종합

울주지역 풍광에 디자인 입힌다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확정

울산 울주군이 모두 120여원을 들여 지역 주요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문·역사문화 경관도 개선한다. 노후화된 구도심의 활기를 되찾고 관광적 유치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개발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울주군은 12일 '울주 디자인네트워크 12 마스터플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12개 읍·면별 종합 디자인계획을 수립했다. 12개 읍·면을 각각 서부권과 중부권, 남부권으로 설정하고 '회랑'을 모티브로 관개별 특징을 고려한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했다.

◆서부권(연암·두동·두서·삼남·상동·상북)

연암읍과 두동·두서·삼남·상동·상북면이 포함된 서부권은 '천년의 숲, 미래의 희망을 나누다'라는 테마 아래 산림·하천 중심의 친환경 디자인 개발이 추진된다. 연암알프스시장 풍경가로 사임을 중점 추진하는 연암읍은 노후화된 시장 일원의 건물을 통일 디자인으로 교체한다. 좁은 보행공간을 넓히고 곳곳에 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박제상 기념관이 있는 두동면은 역사문화유산 개발로 사업이 진행된다. 박제상로에 전통성이 가미된 가로등을 설치하고 담배막도 기와 형태로 조성한다. 두서면은 국도 35호선 주변에 늘어선 공장과 창고들이 전원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방동림 시설물을 설치하고 외벽의 색채도 조목색 계열로 통일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두동면 박제상 유적지 역사문화유적 탐방로 정비, 삼동면 대암호 일원 둘레길 조성, 송촌면 고연-은현 도로 확장, 서생면 전암대 조성사업 조감도.

연암·상북 서부권 연암시장 간판 디자인 통일 등

범서·청량 중부권 송촌 고연-은현 도로 확장 등

은암·서생 남부권 온산 혁신로 일원 쉼터사업 등

연암항교가 위치한 삼남면은 한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 주변에 울타리 양식의 안내 사인판을 설치하고 버스정류장도 전통양식으로 변경한다. 삼동면은 대암호 일원을 집중 개발한다. 제곡공원뿐만 아니라 일원에 둘레길과 친환경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전망대로 설치한다. 중심도로 경관이 어수선한 상북면에는 보도 및 가로포장

비화거리를 조성하고 화자로 조형물을 설치한다.

공장이 밀집한 송촌면은 고연리와 은현의 일대를 오가는 차량들로 정체가 빈번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로 옆 하천을 복개해 차도를 넓히고 인도도 확보하기로 했다.

부산과 경주를 잇는 교통의 중심인 청량면은 분수대 주변에 대한 경관을 개선한다. 대형 상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홍보시설도 개설했다.

◆남부권(은암·온산·서생)

남부권은 온암·온산읍과 서생면을 대상으로 '대양의 빛, 희망이 일다'라는 콘셉트를 적용한다. 용기축제로 유명한 온암읍은 용기마을 상가지를 중심으로 경관 개선을 추진한다. 전암부교동시설을 개선해 접근성을 향상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의 디자인도 전통성을 가미한다.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인 온산읍은 혁신로 인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쉼터 사업이 진행된다. 범포를 여행하는 디자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공원에 다문화 쉼터도 개설했다.

서생면에는 어른마을 풍경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전암대를 만들고 도로변 벤치와 버스정류장 등을 푸른빛으로 정비하며 해변마을의 지붕 색채도 통일한다. 울주군은 총 사업비 120억원 투입에 주권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은봉기자 bong@kai.co.kr

‘마트로 가는 아이들’ ‘공자는 어떻게 내마음을 알까’ ‘가족의 두 얼굴’

울주군민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 3권 선정

내달 선바위도서관서 선포식
독서릴레이·작가초청강연 등

울산시 울주군은 독서문화와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으로 ‘마트로 가는 아이들’(박현숙 저)과 ‘공자는 어떻게 내마음을 알까?’(김미성선생님과 제자들 저), ‘가족의 두 얼굴’(최광현 저) 등 3권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의 책’은 지난 2월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도서 중 사서들의 심의를 거친 도서를 분야별로 각 5권씩을 선정할 후 온·오프라인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아 대상별 최고 득표 도서를 선정했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 중 어린이 분야의 ‘마트로 가는 아이들’은 복지의 시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마트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 청소년 분야의 ‘공자는 어떻게 내마음을 알까?’는 심대를 위한 공자의 인성 안내서이며, 성인 분야의 ‘가족의 두 얼굴’은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심리학적 시선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5월 중 선바위도서관에서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독서릴레이, 작가초청강연, 독서토론 및 독후감 공모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독서릴레이 참가 신청은 이달 중으로

사전접수 받을 예정이며, 5인 이상 동아리, 직장인 등이면 참가 할 수 있고,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52-223-8894)로 문의하면 된다.

선바위도서관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올해의 책을 선정할 만큼 선정된 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행사를 개최해 군민의 관심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hsh@

울산제일일보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006면 사회



울주군은 18일 연양읍 남부리 일원에서 신장열 울주군수, 한성용 군의회의장, 윤시철 시의회의장, 시·군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양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郡, 연양 공영주차장 준공 소형 601면 등 632명 조성

울산시 울주군은 18일 연양읍 남부리 일원에서 신장열 군수와 한성용 군의장, 윤시철 시의장, 시·군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양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군은 총 사업비 186억7천300만원(국비 13억2천만원, 시비 4억4천만원, 군비 169억1천3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소형 601면, 대형

16면, 장애인 15면 총 632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구도심인 연양 시가지 일대는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통행과 주차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장남에는 전통시장 인근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해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번 공영주차장 준공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또 주차장 중앙부는 공장형태로 조성해 추후 연양불고기 축제 등 각종 행사 장소로도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은혜 기자

울산제일일보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006면 사회

郡, 옹기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축제추진위-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20일 관련 세미나

울산시 울주군이 '옹기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한다.

울주군과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는 장기과제로 옹기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축제추진위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 관련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세미나는 전북 전주에 있는 유네스코 조직의 하나인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력해 마련한다.

군은 세미나에서 '옹기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가치와 방향'을 주제로 옹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가치, 옹기를 사용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방안,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태무형유산센터 허권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다.

또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옹기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옹기축제추진위 관계자는 "세미나는 울산 옹기축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옹기문



11일 울주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2017 울산옹기축제 종합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신장열 울주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의 세계성을 가능하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울산 옹기축제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린다.

옹기장난촌, 옹기정수촌, 옹기도깨비촌, 옹기산책촌, 옹기무형유산관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는 "이번 옹기 축제에서는 낮에는 흙놀이 밤에는 불놀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흥겨움을 전하고, 축제장 곳곳에 옹기발효와 관련된 체험과 먹거리 배치를 통해 옹기축제만의 차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기자

울산매일

울주군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첫 수상자 선정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002면 종합

美 '릭 리지웨이' 주인공... 선정위 "'자연과 공존' 주제 가장 부합"

'히말라야 K2'美 첫 무산소 등정
'캘리포니아의 그늘'등 저서 다수
산악·탐험·다큐로 에미상 수상도
"첫 수상 영광... 더욱 겸손해질 것"
9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서 시상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첫번째 수상자 릭 리지웨이(Rick Ridgeway-미국).

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 후보에는 릭 리지웨이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알파니스트 '그리스 브닝턴', 미국의 '어빈 리나드', 부탄 국왕인 '지그메 케시르 남기엘 왕후크' 등 4명이 올랐다.

릭 리지웨이는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K2를 1978년에 미국인 최초로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 원정대의 기록을 담은 'Seven Summits: 리는 책을 통해 7대륙 최고봉이 처음으로 조망된

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 확정

일시: 2017. 4. 17.(월) 11:00 장소: 울주군 브리핑룸



신장열 울주군수(울주세계산악영화제 조직위원장)가 17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울주군청)

었다. 그의 저서 '캘리포니아의 그늘'은 1998년 뉴욕 타임스 선정 '10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으며, 국내에 출간된 '아비지의 산', '그들은 왜 히말라야로 갔는가' 등은 산악 관련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외에도 직접 감독하고 제작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선정위원회는 릭 리지웨이의 도전, 깊은 산악인들에게 영감을 준 그의 저서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환경운동가로서의 활동이 '자연과 공존'을 주제로 한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가장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릭 리지웨이는 "첫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다. 더욱 겸손해지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올해 제정된 세계산악문화상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산악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 영화제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은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기간 중 시상식이 열리며, 수상자인 릭 리지웨이는 영웅에 참석해 특별 강연 등 다양한 이연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영남일보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고은정 기자 kosenet@ulju.com

진하서 'PWA 세계윈드서핑' 팡파르

8일까지 세계 정상급 프로서퍼 각축
250개국 180여명 선수·임원 참가

세계 정상급 프로 윈드 서퍼들이 참가하는 '2017 울산 진하 PAW 세계윈드서핑대회'가 3일 개막했다.

올해로 10번째 열리는 이 대회는 8일까지 진해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

PAW(프로 윈드서퍼 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윈드서핑 프로선수들의 협의 기구다.

대회에는 남자부 세계랭킹 1위인 이탈리아의 마테오 아치노(Matteo Iachino)를 비롯한 플랭크 20위권을 포함한 56명과 여자부 세계 1위 아루바(카리브해 네덜란드령)의 사라퀴타 오프링가(Sarah-Quita Offringa)를 비롯한 21명 등 총



2017 울산 진하 PWA 세계윈드서핑대회 개막식이 3일 울주군 서생면 진해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신장열 울주군수, 한성열 군의회 의장, 윤시철 시의회 의장, 지미 디아즈 PWA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개국 18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다.

개막식에서는 인기가수 공연과 플라

이보드 해상 시범을 선보였다. 대회기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같은 장

소에서 전국 규모인 제5회 울주군수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열렸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제26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20일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가운데 신장열 울주군수, 한성열 군의회 의장, 김기현 시장, 윤시철 시의회장, 강길부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5천여명 참가 성료

친선 체육대회·군민상 수여
특산물·다문화 체험부스도

울산시 울주군은 5월 세번째 주말인 20일 서생면 간절곶스포츠파크에서 군민 최대 축제인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26번째 맞는 군민의 날은 '울주'

라는 이름이 만들어진지 1,000년이 된 '울주정명 천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도약을 하고 군민의 화합·친선을 다지기 위한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장열 군수 등 기관단체장, 시, 군의원, 공무원, 주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를 슬로건으로 기념식, 읍·면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군민상 수여, 기업인상 수여, 기념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줄다리기와 800m 계주, 게이트볼, 팔씨름, 단체줄넘기, 윷놀이 등에 읍·면 대표 선수들이 나와 대항전을 펼쳤다. 기업체 대항 족구, 풍물경연, 기관·단체 릴레이, 불꽃농구, 홀라후프, 한궁 등 친선경기도 선보였다. 축제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사생대회, 다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체험부스, 전통차 시연회, 울주군 농특산물 홍보 및 시식회 등이 마련됐다.

최성환기자 csh@

경상일보

2017년 6월 1일 목요일 006면 사회

울주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첫삽

지역 성장거점 2019년 9월 조성
1조9천억 생산·4300명 고용창출
분양률 4%대 사업비 확보 곤란
군의회 예산편성에 사업 안정화

지조한 분양률로 재검토 논란이 일었던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대와 우려 속에 본격화됐다.

울주군은 31일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융합 산단 현장에서 김기현 시장과 신장열 군수, 시·군의원,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에너지융합산단은 100만㎡ 규모로 2019년 9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가 2790억원에 이르는 울주군의 최대 규모 사업이다.

군은 산단 내에 원자력과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울주군은 31일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신장열 군수, 한성열 군의회의장, 기업체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산단이 조성되면 1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3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국도 31호선이 개설되면 부산·경주·포항과 1시간대로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 산단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며, 각종 부담금 및 세금 감면 등 울주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췄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의 악재로 분양률이 4%대에 그치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1회 추경에 220억원의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군의회는 논란 끝에 지난 26일 상임

위 계수조정에서 220억원 전액을 편성 승인했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장열 군수는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입주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읍·면·동 파격적인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며 "산업도시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봉기자

울산제일일보

2017년 6월 8일 목요일 007면 사회

해맞이-해님이 명소 '간절곶-호카곶의 만남'

郡,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문화·관광·경제 교류·협력사업 추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과 유라시아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포르투갈 신트라시가 문화관광 활성화를 협력하기로 하고 손을 맞잡았다.

신장열 울주군수와 최길영 군의회의 행정위원장은 울주군 일행은 지난 5일 오후 4시(현지 시간) 신트라 시청을 공식 방문해 바실리오 호타 시장을 만나 우호 교류 의향서를 전달하고 서로 협력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 군수와 호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울주의 간절곶과 신트라 호카곶의 상징물을 연내 교환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울주군은 미리 준비해 간 양쪽의 상징물 미니어치를 선물해 호타 시장 등 신트라시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울주군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 자매결연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출과 일몰을 연계한 축제 개최 등 양 도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도



신장열 울주군수는 지난 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 시청을 공식 방문해 바실리오 호타 시장을 만나 우호 교류 의향서를 전달하고 울주의 간절곶과 신트라 호카곶의 상징물을 연내 교환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추진키로 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세계에서 유일한 상징성을 가진 두 도시가 만났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매개로 앞으로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동서 간 글로벌 우정을 쌓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타 시장은 "시장으로 입하면서 교류하게 된 첫 한국 도시라 정말 뜻깊다"며

"앞으로 자주 왕래하며 문화와 관광,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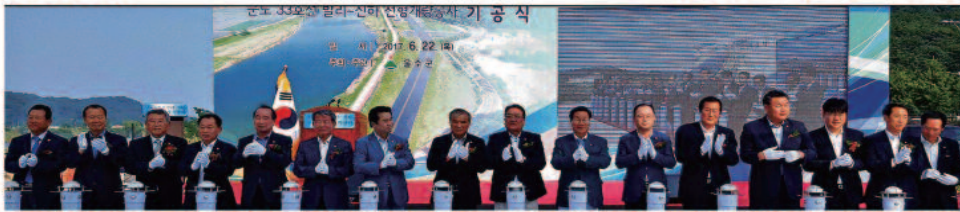
울주군은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상징성을 가진 '간절곶'이 있는 도시로 해마다 새해 첫 날 평균 13만~15만명이 찾는 전국적인 해맞이 행사를 열고 있다.

신트라시 '호카곶'은 유라시아 최서단

이베리아 반도 땅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세계적 명소가 명소로 연간 1천만여명이 찾고 있다.

특히 호카곶에는 포르투갈 국민 시인 루이스 카몽이스(Luís de Camões, 1524~1580년)가 쓴 어가,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한다는 글씨가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김은혜 기자



울주군은 22일 서생면 화정리 776-2 일원에서 '군도 33호선 발리~진하 선형개량공사 기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신항열 울주군수, 한성철 군의회 의장, 윤시철 시의장, 사·구의회 등 참석자들이 안전시공을 염원하는 발미버튼을 누른 뒤 축하박수를 치고 있다.

‘마의 구간’ 군도 33호선 발리~진하 직선화 공사

서생 마슬교~서생삼거리 2.16km
92억원 투입 내년 5월까지 실시
접근성 향상·교통혼잡 개선 기대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울주군 온양읍 발리~서생면 진하 간 군도 33호선 구간이 직선화로 새로 개설된다.

기존 도로 구간은 급커브 지점이 많아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22일 오후 신항열 군수, 한성철 군의회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내년 5월까지 회야강 제방 쪽으로 군도 33호선의 직선화 도로 개설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직선화로 새로 개설하는 구간은 서생 마슬교에서 서생삼거리 간 너비 8m, 연장 2.16km다. 공사비는 92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도로 구간은 온양에서 온산공단, 서생지역으로 접근하는 주 길목으로 1일 평균 통행량은 7,000여 대에 달한다.

하지만, 주변 산지 지형에 맞춰 도로선형이 어둡다보니 급커브길이 곳곳에 산재해 군 지역에서 차량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선형 불량 탓에 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하면서 서생, 온양지역 주민 간에는 ‘마의 구간’으로 불린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서생지역의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온산공단 물류차량

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도로선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민 김모(56) 씨는 “진하해수욕장과 간월곶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열악한 도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 측은 선형 개량은 국도14호선과 공사 중인 국도31호선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안정적인 교통혼잡으로 불편한 대안지하차도의 교통량 분산을 기대하고 있다.

김종인 군 도로과장은 “도로선형이 개량되면 운행속도는 시속 60km(현재 40km)로 상향 조정되고 이 구간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도 급격히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o3@ulsanpress.net

울주군, 신청사 이전 청량면 ‘읍’ 승격 본격 추진

군 사무소 소재지 승격 요건 갖춰
주민의견 수렴 뒤 내년 5월 개청식

울주군이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청량면의 ‘읍’ 승격을 본격 추진한다.

12월 울주군에 따르면 군 청사가 오는 12월 청량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군 소재지인 면의 경우 읍으로 승격하는 요건을 갖췄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는 ‘인구 2만 명 미만이라도 군 사무소의 소재지 면은 읍 승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군 측은 읍 승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데다 군청 소재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위상정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개 행정리를 갖고 있는 청량면의 거주 주민은 6,836세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중으로 청량면의 ‘읍’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내달 말까지 청량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1월 군청 소재지 변경을 위한 조례 제정과 내년 2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뒤 그해 3월 읍 설치 조례 제정 및 공포, 5월 ‘읍’ 승격을 위한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55년 만의 군청사 이전으로 청량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군 지역은 기존 4읍 8면에서 5읍 7면 행정체제로 개편된다.

앞서 언양읍과 온산읍은 지난 1996년, 범서읍과 온양읍은 2001년 읍으로 각각 승격했다.

김재수 군 총무과장은 “청량면의 ‘읍’ 승격은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것이지만, 새로운 도시개발요인 창출에 따른 인구증가 등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청량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은기자 jdo3@

울산신문

2017년 8월 4일 금요일 007면 사회

郡, 도로 지정사업 추진...건축허가 민원 줄 듯

건축법상 도로 지정 용역 진행
10월 까지 12개 읍·면별 조사
건축위 심의 연달 대장에 등재

지적법상 정리되지 않은 사실상의 현행 도로에 대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주는 도로 지정 용역이 추진 중이다.
용역은 도로 문제로 인해 불거지는 땅 주인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주의 민원 해소와 건축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시 행정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3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목상 도로로는 아

니지만,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주변 건축행위와 관련해 땅 주인과의 마찰이 빈번하다.
군은 이에 따라 장기간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현행 도로 조사에 나섰다.
해당 도로에 대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해 건축행위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이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다.
12개 읍·면별 현장위치와 수량 파악 등을 위해선데 오는 10월까지다. 용역비는 1,800만원.
도로 지정대상은 사유지이지만, 하천이나 제방으로 연결되는 통로, 주변에 건

축허가가 있거나 포장 및 확장된 도로 등 사실상의 현행 도로이다.
총 대상지는 150곳이다. 용역업체는 이중 지난 달 온산을 일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현재 50곳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했다.
용역에는 해당 도로에 대해 도로 지정이 가능한지 종합 진단에 도로 지정 시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군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을 공고하고 건축주들이 좀더 쉽고 빠르게 열람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현행자료로 활용토록 연달까지 건축법상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해 읍·면 및 관련부서에 비치한다.

앞서 군은 지난 2011년께도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공고하고 그해 12월 도로관리대장을 발간했다.
도로지정 공고는 199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유지이나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총 321곳(길이 3만8,283m, 면적 14만 9,006㎡)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용역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건축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땅 주인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변경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o3@ulsanpress.net

경상일보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010면 사람



울산 울주군은 10일 온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신장열 군수, 한성을 군의회 의장, 김동술 온양읍장, 이순걸 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장광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읍 착한가게 단체가입식을 가졌다.

‘착한군·천사군’ 울주, 3년연속 나눔 실천

울주 온양읍 33개소 단체가입으로
전국 최초 착한가게 600개소 돌파

전국 최초 착한 군(郡)과 천사 군(郡)으로 선포됐던 울산 울주군이 3년 연속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등 나눔으로 빛이 났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일 울주군 온양읍 33개소에 대해 착한가게 단체가입식을 열었다. 지난 2015년 11월 전국 최초로 군 단위 착한가게 500개소를 돌파한 울주군은 이날 단체가입을 통해 600개소 돌파라는 기쁨도 누렸다. 울주군 온양읍은 지난 2015년 11월 32개소 착한가게 단체가입에 이어 두 번째 단체

가입식이다.
이날 가입식이 더욱 뜻깊었던 이유는 지난 2015년 구성된 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게 한 곳 한 곳을 방문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고 열심히 설득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울주군 착한가게 600호의 주인공은 무려 43년간 한 곳에서 서점을 운영해 온 오만석(67) 대표다. 온양읍이 고향인 오 대표는 오랜 시간 서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오 대표는 단체가입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기도 하다.

오 대표는 “동네서점이 있어야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서점을 운영해온 것이 벌써 43년이나 흘렀다”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점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웃을 돕기 위한 마음 하나로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우리 울주군민의 나눔 활동이 전국 지자체 우수 사례로 선정돼 타 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품정책특강을 실시할 만큼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3년 연속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30년, 그 이상 끊임없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세훈기자 aqwe0812@kailbo.co.kr

복합웰컴센터 주변 종합 산악관광지로 개발 추진

울주군, 종합마스터플랜 2차 보고회
5개 사업에 총 415억원 투입안 제시
내달 최종보고회 열고 용역 마무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메카인 복합웰컴센터 주변을 종합 산악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의 거대이 잡혔다. 복합웰컴센터 일원을 이야기와 모험, 레포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체류와 놀이 가능한 사계절 가족관광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울산 울주군은 4일 신장열 군수와 자원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웰컴센터 일원 종합마스터플랜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보고회에서 '이야기숲' '모험의숲' '실내 레포츠센터' '경관개선사업' '교통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15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용류폭포 인근에 조성될 영남알프스 이야기숲을 이야기하는 나무와 트리애피스, 용류폭포 전망대, 숲도서관, 관백집 산책로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야기숲의 핵심 시설은 트리애피스다. 트리애피스는 용류폭포 일원에 설치되는 400m 길이의 구조물로 지상 최대 40m 높이에서 산책하며 숲 전망을 감상하게 된다.

또 용류폭포 주변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협정 산책길과 우드칩 산책로를 설치하며 전망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숲 조성에는 총 140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산악영상문화센터 인근 숲에 용역원을 들어 모험의 숲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울주군은 4일 신장열 군수와 자원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웰컴센터 일원 종합마스터플랜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복합웰컴센터 주변을 종합 산악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앞하는 나무, 트리애피스, 네트워크, 숲드벤처 체험지, 실내 아트클라이밍장 전시도.

다. 사계절 안전하고 재미있게 자연을 배우는 숲체험 놀이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출렁다리'를 통해 모험의 숲에 들어선 뒤 실내 체험이 가능한 숲 체험교육센터에서 생태·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체험 뒷밭에서 각종 식물들을 관찰하게 된다. 또 친환경 야외 레포츠 시설인 숲 어드벤처 체험지와 네트워크, 창의 자연놀이터, 원동 미끄럼틀 등의 놀이체험 시설도 갖춘다. 아동은 물론, 레포츠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악영상문화센터 옆에는 150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실내 레포츠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센터에는 실내 아트 클라이밍장, 미니 반지점프인 프리폴 점프 낙하체험장, VR 레포츠체험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인 만큼 영남알프스 사계절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또 경관개선에 17억원을 투입해 수남지구 상정 의문과 복합웰컴센터 숲의 문 등을 조성하고, 가도경관과 야간경관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교통개선 사업에 16억원을 투입, KTX울산역은 물론 인근을

연계하는 순환 버스 등을 운영하고자 제시했다. 전문 등반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 시티투어 등도 건의했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사업을 단기와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한 뒤 우선 단계적으로 최대한 숲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에 집중하기로 하고, 개발이 필요한 사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영남알프스 행복 캐이불카와 유사한 노선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일리인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인해 취소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다음 달 중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은봉기자

울주군 인구·재정 전국 '최고' 수준

전국 군단위 가운데 울산 울주군의 인구와 재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울산시의 인구는 117만2304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30명이 줄었고, 북구를 제외한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군 단위 인구조사에서는 울주군이 21만925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

록했다. 시·도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경기, 세종, 충남, 인천, 제주, 경남, 충북, 강원 순으로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 연령은 41세로, 남자는 39.8세, 여성은 42.4세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38.9세로 세종 36.8세에 이어 두번째로 젊은 도시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41.0세다.

지자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

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 재정집행 자율권의 측정지표인 '재정자주도'는 74.9%로 각각 전년 대비 1.2%p, 0.7%p 향상됐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64.1%로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시(83.3%)와 세종시(70.5%)이 이어 세번째를 기록했다.

울주군은 군 단위에서 재정자립도 49.7%, 재정자주도 74.9%로 각각 전국 최고를 나타냈다. 공무원 관련 통계를 보면 작년 전국 공무원수는 102만9538명으로 전년 대비 0.8% 늘어났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울산제일일보

2017년 9월 7일 목요일 007면 사회

郡,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조례 개정

65세 이상 모든 보훈대상자 포함... 지원 대상 1천591명→2천867명 확대

울산 울주군은 기존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울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명예 의식과 복지 증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군의회 의결을 받았다.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참전 유공자 및 순직·전몰군경 유족에게만 지원하던 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모든 보훈대상자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1천591명에서 2천867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26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 협의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내방하는 등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보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규진 기자

울산신문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008면 사회

울주군 중학교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시행

면지역서 읍지역 학생까지 확대
8개 중학교 4,200여명 25억 필요
군·시·교육청 부담비율 조정키로

울주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군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그동안 면지역 중학교에만 실시해 오던 무상급식을 읍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울산 5개 구·군 중 울주군이 처음이다.

신장열 군수와 한성윤 군의회 의장은 1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내년부터 군지역 전체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그동안 읍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교육청과 이견을 보였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돼 군과 교육청, 시 등 3개 기관이 급식비 부담 비율 협의를 갖고 읍 지역까지도 포함한 군지역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재정부담 비율은 3개 기관이 조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에 따르면 군지역 중학교는 모두 14개교이며, 학생수는 6,288명에 이른다.

이 중 면지역 6개 중학교 학생 977명과 저소득층 학생 등 2,081명은 지난 2012년부터 6년째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읍지역 중학생 4,207명은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됐다.

시와 교육청이 면지역 중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는 한 해 12억7,0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읍지역 학부모들은 "행평정예에 어긋난다"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 주민청원운동을 벌였고,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나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촉구해 왔다.

군 측은 내년부터 읍지역 8개 중학교 4,207명에게도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추가로 부담하는 급식비는 25억6,800만 원

(시·교육청·군 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7억 원 정도 늘어난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무상급식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신 군수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생들에겐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학부모에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내년 읍리 신청사 시대를 맞아 앞으로 교육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군이 2013년부터, 4개 구는 올해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정두은기자 jdo03@ulsanpress.net



신장열 울주군수와 한성윤 군의회 의장, 군의원들이 1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울주군지역 전체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윤서기자 uenys@

320m 해상에서 간절곶 절경 즐긴다

(국내 최장길이)

울주군 스카이워크 사업 윤곽
수면 위 15m 높이 S자형 구조
바닥과 관람대벽 유리로 처리
우측 해상 대형분수 설치 고려

울산 울주군이 추진 중인 간절곶 스카이워크(Sky-walk)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해수면 위 15m 높이에 들어서는 간절곶 스카이워크의 총연장은 320m에 폭 3m로, 단일 코스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 지난 2015년 설치된 부산 송도 스카이워크의 경우 전체 구간은 365m에 달하지만 해변을 따라 위치한 바위섬과 연결돼 순수 연장은 간절곶이 더 길다는 평가다.

울주군은 지난 5월 '간절곶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달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20일 윤곽을 드러낸 간절곶 스카이워크는 간절곶 모자상 옆 육상에서 해상을 향해 완만한 S자 형태로 이어진다. 당초 반원형으로 계획했지만 해맞이 행사때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S자형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해상으로 훨씬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돼 더욱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해상 15m 높이의 스카이워크를 따라 거대한 구조물을 지나 바다 위를 산책한 뒤 육지에서 300m 떨어진 해상에



길이 320m 규모의 간절곶 스카이워크 조감도.

서 바다와 간절곶을 동시에 조망하는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바닥 유리는 폭 2m 대형유리를 가운데 1장 설치하는 방안과 폭 1.15m의 유리를 좌우에 각각 1장씩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320m 지점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끝부분에는 지름 20m에 달하는 대형 관람대가 설치된다. 관람대 바닥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물론, 관람대 외벽에 해상으로 기울어진 유리벽을 설치해 유리에 기대서 아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진입부에 위치한 관리소는 동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를 조형화한 모습으로 이어진다. 연면적 820㎡ 규모로 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2층에는 관리소와 대표소가 들어선다.

군은 다른 스카이워크와 차별화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진입부분에 간절곶 이름에서 착안한 간절히 기도하는 손 모양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스카이워크 구간 내에 21m 높이의 주탑 2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스카이워크 우측 해상에 대형분수 설치를 고려 중이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세를 떨치지만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간절곶이 스카이워크 설치를 계기로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울주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국내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스릴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간절곶 스카이워크가 울주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울산신문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011면 문화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이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그린카펫 행사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재홍 추진위원장, 신장열 울주군수,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의 첫 수상자인 릭 리지웨이가 산을 의미하는 손모양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홍 추진위원장, 신장열 울주군수,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의 첫 수상자인 릭 리지웨이가 산을 의미하는 손모양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층 더 풍성해진 행사 1,500여명 몰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

영남알프스의 자연을 배경을 펼치는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 축제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영화제는 21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개막식은 그린 카펫, 무대인사, 퍼포먼스 등 더욱 풍성해진 행사로 관람객들을 맞았다.

#게스트 그린카펫 통해 입장

개막식전 공연은 차소민 무용단과 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상영작 '나도 K-Pop 스타'의 주인공,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커버 댄스 그룹인 네발의 '스트라파보이즈'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초청된 게스트들은 '그린 카펫'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울주서밋 2017' 감독 김준성, 홍보대사 윌리엄스 산악인 김창호 대장과 배우 예지원, '2017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수상자인 릭 리지웨이가 그린 카펫을 통해 입장했다. 개막식 사회자인 배우 김연권과 유선도 밝은 미소로 관객에게 인사를 건넸다.

국내 산악계, 영화계 인사들과 신장열 조직위원장, 박재홍 추진위원장, 김기현 울산시장도 그린 카펫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릭 리지웨이 세계산악문화상 수상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상영과 신장열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2017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시상식' 등 공식행사도

마련됐다.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의 수상자 릭 리지웨이는 22일 특별강연을 통해 관객들을 한 번 더 만나 그간 펼쳐온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이야기 들려줄 예정이다.

개막식 후에는 초청 가수 YB 윤도현 밴드의 개막공연이 펼쳐졌다. '잇을게' '나는 나비' 등 인기곡을 연달아 부른 YB는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답게 폭발적인 에너지로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개막작 '독수리 공주' 상영

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막작 상영도 이어졌다. 개막작 '독수리 공주'는 몽골 알타이산맥 아래 사는 유목민 소녀 아이슬란에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독수리 사냥에 도전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사회적 편견에 굴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독수리 사냥 전통을 뜻있게 이어가는 아이슬란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25일까지 97편 무료상영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닷새간 2개국 97편 영화 상영을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21일부터 25일까지는 작천정삼거리에 있는 주차장에서 복합웰컴센터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작천정삼거리 주차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20분 간격으로, 복합웰컴센터에서는 오후 1시부터 10시 40분까지 역시 2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김현주기자 usbs@



산악계 인사와 영화관계자들이 그린카펫에 올라 관람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1,500여명의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윤도현밴드가 개막공연을 펼치고 있다.



개막선포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노윤서기자 usbs@



26일 울주군 청량면 울산원에농협 율리사업소에서 신장열 울주군수와 울산원에농협 김철준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배 한국 최초 중남미(브라질) 수출 환송행사'가 열렸다. 정동석 기자

‘명품 울주배’ 한국 최초 브라질 수출

1천500만원 상당 ‘신고배’ 7t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 수출

울산 울주군의 주요 특산품인 명품 울주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남미(브라질) 수출길에 오른다.

울주군은 중남미 수출을 기념해 26일 청량면 울산원에농협 율리사업소에서 신장열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수출한 울주배는 중·만생종 품종인 ‘신고’ 약 7t(시가 1천500만원 상당)이다.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의 최대 도시 상파울루로 수출한다.

브라질 수출은 올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 전국 2개소(울산, 나주)를 브라질 수출 선과장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울산원에농협이 수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울주배’ 브라질 현지 판촉 및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4년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한국산 배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고 양국이 지난해 11월 수출검역 요건에 합의하면서 올해부터 우리나라산 배를

브라질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병훈 울주군 농업정책과장은 “올 들어 미국 및 베트남 수출에 이어 국내 최초로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에까지 수출하게 된 것은 군 특산품인 울주배의 품질이 전국 어느 배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울주배를 많이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배의 올해 수출 예상물량은 730t(22억원 상당)이며, 이달 현재까지 미국에 70t, 베트남에 22t을 수출했다.

김규신 기자

울산신문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002면 종합

작괘천, 친수하천으로 거듭났다

등억교~온천교 2.1km구간 사업 준공
제방축조·호안정비·산책로 등 갖춰

울산의 대표적 명소인 작괘천이 명품하천으로 탄생했다.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초입부에 추진한 작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을 30일 준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작괘천 친수하천 사업은 등억교~온천교 2.1km 구간이다. 이곳은 해마다 피서철이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 사업은 군 측이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사업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친수사업을 병행해 지난 해 6월 전액 군비 79억 원을 투입해 착공했다.

하천구간 내에 제방축조와 호안정비, 산책로, 칼라아스콘포장(길이 1.6km), 데크(길이 0.5km), 황토포장(길이 0.45km) 등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또 수변쉼터 1곳(6,312㎡)과 자연형 물놀이장 1곳(1,465㎡)도 들어섰다.

작괘천 상류지역은 피서철이면 만성적인 불법 시설물 무단점용 행위가 잇따라 군 측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주변 일대가 천혜의 절경을 간직하다보니 피서객들이 집중적으로 찾는 반면, 하천변은 평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와 자칫세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로 해마다 상인과 피서객간 잦은 실랑이로 '청정 울주'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군 측은 불법 상행위 근절외에도 소중한



자연유산인 작괘천이 매력적인 명품하천으로 탄생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작괘천 주변에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메카인 복합웰컴센터가 들어선 데다 작천정 별빛야영장이 운영 중이고 등억야영장도 내년 4월 조성 예정이다. 또 시·군이 영남알프스 마운틴1번지 구축을 위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맞아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하천변에서 발을 담그거나 산책로를 걸으며 주변 경관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준공하는 작괘천 하천변에는 관리인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하천감시와 하천정화 활동을 펼친다. 준공식은 내달 24일로 예정됐다.

한편 작괘천은 바위에 움푹 파인 형상이 마치 술잔을 걸어 놓은 듯한 형상에서 명칭이 유래됐다.

정두은기자 jde03@ulsnapress.net

한우 맛보고 즐기는 '봉계한우불고기 축제' 성황

다양한 공연·체험행사로 눈길
외국인 대상 무료 시식 진행도

울산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2017 봉계 한우불고기축제가 울주군 봉계한우불고기 특구 일원에서 15일까지 3일간 열렸다. 축제는 지난 13일 풍류콘서트를 시작으로 개막식과 축하공연, 코스프레 콘테스트와 퍼레이드, 봉계 한우 가요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17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전통 놀이 체험, 떡메치기 체험, 스탬프 릴레이 투어 등이 진행됐고, 축제 인근에 조성된 가을꽃단지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은 일루미네이션 포토존과 영화 속 캐릭터 조형물, 워닝소리길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세계로 향한 봉계한우불고기 축



봉계 한우불고기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불고기특구인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한우불고기단지에서 열렸다.

제'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들을 위해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금구이 쿠폰을 제공하고, 무료 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한우불고기 특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우불고기축제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울주군, 의료급여사업 '복지부장관상'

울주군은 2일 '2017년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포상을 받았다. 군청 부군수실에서 이경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매일

울주군, 복합웰컴센터 일일 종합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007면 중합

‘웰컴센터~홍류폭포’ 트리탐패스·짚라인 등 테마숲길 조성

실내 산악 레포츠센터 건립
교통연계 강화·경관 개선 등
2022년까지 총 435억원 투입
군, 사업 단독 추진...민관 운영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울주군 복합웰컴센터 일일의 관광
인프라는 공공 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
은 민간이 함께 하는 ‘울주 영남알프스 등
험관광 운영위원회(가칭)’가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울주군은 13일 오후 군청 2층 상임상
에서 복합웰컴센터 일일 종합마스터플랜 최
종보고회를 열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테마숲길, 상상의 숲,
실내 산악레포츠센터 조성, 경관개선 사
업, 교통연계 사업 등에 예상 사업비는 총
435억원이다.

사업은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될
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에는



기존 있거나 조성 중인 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해 자연실지 마을 조성사업, 복합웰
컴센터~홍류폭포 테마숲길, 상상의 숲 조
성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말하는 나무, 트
리탐패스 등이 조성되는 테마숲길에는 한
강알뜰방과 여러 숲을 아우르는 탐로로
했던 ‘짚라인’이 다시 포함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공평시에 포포리

고, 공원계획 변경면적 10만㎡ 미만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다소 용이한 소규
모 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3단계
사업에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로 전
국에 실내 산악 레포츠 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레포츠센터에는 점프스
타, 파라볼릭슬라이드, 스미노 클라이밍

울주군은 13일 군청 상
설에서 신정열 군수 등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웰컴센터 일일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
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등이 들어선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조성된 시설 간 교통연계
경로와 교통편을 개선하는 사업이 계획됐
다. 사업 후안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울주군이 단독
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
만 앞으로 운영 부문을 전문 운영회사나
주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책로나 조형물, 경관개선 사업 등 공공
이 이용하는 편의·지원시설의 관리도 울
주군이 직접 담당한다. ‘말하는 나무’나 발
하는 배워와 같이 수시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짚라인, 트리탐패스, 실내 산악 레
포츠센터 등 운영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
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공평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이들 시설의 경우 사용 수
익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R&B관제센터나 오가니 카운터, 여왕
알프스 순환 셔틀버스 등 수익이 발생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남알프스 일대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체험자원을 연계하는 민간 협력자를 선
립해 사업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원은 ‘울주 영남
알프스 통합관광 운영위원회(가칭)’도 제
시됐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이번 용역은 올 3
월부터 진행됐다.

주성대 기자 jsm384@ulma.co.kr

울산신문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003면 중합

울주세계산악영화제, 2년 만에 IAMF 정회원 됐다

(국제산악영화협회)

#3년 계획 필수조건 불구 만장일치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3년 영화제의
수준을 충족했다. 3년 만에
국제산악영화협회(IAMF)의 정회원 지
위를 지켰다.

IAMF 정회원 가입은 3년 계획이
필수 조건이지만, 지난 달 30일 제14
차 회의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IAMF 회
원국들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수준
과 역량을 높이 평가해 회원국 자격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파키스탄과 중국, 콜롬비아의 산악영
화제에서 7년 정회원 됐지만, 울주
만 승인을 받았다.

IAMF는 산악영화제를 비롯한 산악문
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00년 설립된 국
제 단체로, 이탈리아, 프랑스영화제와
제네바, 벨기에영화제 등 17개국 22
개 영화제와 이탈리아 국립산악박물관
1개 등 모두 23개 단체로 구성됐다.

IAMF의 가입 필수 조건은 △3년 이
상 개최 △국제적 경쟁 부문 포함 △산악영
화제 중심 행사 등 3가지다. 울주세계산
악영화제는 3년 계획은 2년지만, 30년
경인 프랑스영화제를 비롯해 개최
한 게 자족 조건으로 인정받았다.

영화제 행사기간 지역단체와 연계하
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고, 회원국 행사
승인과 조차, 대회 규모 면에서도 높
은 점수를 받았다.

제2차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게스트
로 참여한 회원국 멤버들도 대회의 흥
광적 개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큰
장점으로 꼽혔다. 2차 영화제는 지난 9
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영남알프

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렸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알도 아우디시오
아라곤이, 국립산악박물관장(IAMF 사
무국장)는 “2차 영화제를 관람한 멤버
들이 ‘규모와 운영 면에서 산악 영화제
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성숙한 행사였
으며, 산악영화제에 대한 주의 속의 순
수한 교육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
다’고 다음 회를 도왔다”고 회의 분위
기를 전했다. 그는 2차 영화제에서 국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IAMF 홈페이지
에 내 홍보 공간 확보와 이를 통한 국제
경쟁 부문 접수 위원회, 공동 프로젝트
추진, IAMF 공식프린트 수상지 선정 의
결문 등 ‘회원국 프리미엄’ 혜택을 받
는다.

#지자체 지원·운영 규모 등 고려가
영화제는 그동안 홈페이지와 함께 게스
트들의 구인 홍보 등에 의존해 운영했
지만, ‘울주’라는 영화제 고유 지명을
아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 30개국
에 널리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국 측은 회원국 간의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관련 분야 역량을
높여 나간다는 제2차 산악영화제의 반
응을 살리는 것도 발자국을 남겼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신정열 군수는 “IAMF 정회원 가입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국내 유일이자
최고의 명성을 얻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
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영화제
에 따라 장소적 특색의 역사가 깊은 산악



신정열 울주군수가 13일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3년 만에 국제산악영화협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
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영화제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뿐 아
니라, ‘좋은 영화제’로서 앞으로 세계산
악영화제 발전에 많은 역량을 할 것이라
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혜택 영화제 성장 기대
한지 군 측은 산악영화제의 글로벌 전
문 경쟁력을 위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의 발전 인가심의를 시에 신청 중이다.
발전 인가를 받으면 내년 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본격 출범 예정이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국제산악영화협회 정회원 공식 승인
2017. 11. 13.(월) 11:00
정몽규의 불꽃
신정열 울주군수가 13일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3년 만에 국제산악영화협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
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차 산악영화제는 20개국 97편의 영
화 상영과 다양한 참여 행사에 대
응 1만1,800여 명이 참여했다.

영화제에는 세계적인 산악이력 리지
웨이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1호 수
장도 선정돼 울주를 방문했으며, 각
분야에서 평점이 높은 해외 게스트들
과 2017년 30여명의 초청 게스트들도 영
화제에 참석해 다양하게 활약했다.

게스트들은 “영화제는 2차 개최부터
규모와 내용 면에서 엄청난 발전과 폭

폭 성장을 이뤄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내년 1월 사단법인 설립도 순통
특히 리지웨이는 “울주세계산악영화
제는 이미 북미 최대 산악영화제와
비슷한 수준에 올라 있다. 수준 높은 프
로그램과 주최 측의 조직력, 영화제에
참여한 관객들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
다”고 영화제 기간 발언 바 있다.

정문우 기자 jsm384@ulma.co.kr

울산신문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003면 종합

울주군, 전국 첫 원전사고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재난 발생 시 구조소별 현황 실시간 집계
구조물품 등록·배급 등 체계적 처리 가능
구조소 운영 훈련 활용 바 지자체 홍보도

울주군이 원전이 가능 중인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을 통해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군 측은 지난 달 20일 시스템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특허출원했다.

울주군은 20일 소회의실에서 (주)에스큐엔티와 이재민 관리시스템 운영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유유S/W개발사인 에스큐엔티는 주민등록시스템 도로명 주소변경 구축, 선거정보통합시스템 개선사업 구축 등을 추진한 시스템 개발업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 측은 방사능 재난 발생 시 규정된 장비와 인력을 파견해 방사능 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고, 군 측은 이재민 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해 양측 협의를 하는 한편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군 측은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이재민 등록' 절차를 밟으면, 이 시스템을 통해 대피소의 상황을 군청 상황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 기능은 종합적인 이재민 관리와 체계적인 이재민 구조를 관리, 실시간 이재민 현황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이재민을 마을(주소)별 구조소로 자동분류하고,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통

해 구조물품의 수량을 등록, 이재민에게 정확하게 배급이 된다.

또 구조소별 구조물품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구조물품 배급이 과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독제도 가능하다.

현황을 통해 구조소별 등록인 이재민 현황과 미등록인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각 구조소별 현황을 군청에서 집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시스템은 기존 네트워크가 무력화된 경우에도 구조소별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기능도 갖

추고 있다.

군 측은 이재민 관리시스템은 지난 8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6,000만 원이 투입돼 개발됐다.

군은 시스템을 개발한 뒤 이달 14일 열린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보호 훈련에서 한 차례 시범을 보였다.

그동안 전체 이재민 수와 현황 등 모든 관리는 수기(手記)로 이뤄졌는데, 이날 훈련에서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재민 현황은 물론 구조물품 관리, 대피소 상황 집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시스템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도 출품했다.

군 측은 앞으로 이재민 구조소 운영 훈련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재난은 많은 이재민이 발생시킨다"며 "이재민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인 이재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우은기자 jw00@ksilbo.kr



울주군 신성열 군수(중) (주)에스큐엔티 전경도 대표가 20일 울주군청 소회의실에서 방사능재난 대비방책인 이재민관리시스템 운영 상호협력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일보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002면 종합

울주 로컬푸드통합센터 언양에 들어선다

郡,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20년 조성...후보지 4곳 검토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력

인증·교육·지원센터 등 운영

농산물 관리 컨트롤타워 기대

■울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후보지



지역 농산물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울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오는 2020년 연말 일원에 들어선다. 일남권 최초의 직매장 설치로 촉발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확대시켜 농가 소득 향상과 시민 먹거리 안전 등 다기능 상생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24일 농업중앙회 울주군지부 4층 회의실에서 '울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농민과 소비자가 각각 판매와 품질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5월부터 용역을 실시했다.

울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인증센터와 교육·지원센터, 유통가공센터 체계로 가동된다.

군은 울주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인증센터를 운영한다. 인증센터에서는 농지의 수질과 토양,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생산단계는 물론 유통단계에서의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한다. 울주 군수의 인증을 통해 생산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교육·지원센터는 도농 교류, 직매장 관리, 소비자·영양사 교육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생애주기별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실시해 농식품 소비 확대를 도모한다.

통합지원센터의 핵심인 유통가공센터는 계약 재배 및 농가 조직화, 농산물 유통, 로컬푸드 가공 등을 통해 유통 및 가공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규모 창업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의 위치는 언양 일원으로 결정됐다. 언양 반천리 2곳과 구수리, 반송리 등 총 4곳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계획이다. 군은 조만간 예정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부지를

매입한 뒤 2020년 완공 후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비 95억원은 전액 군비로 책정한 뒤 향후 농식품부의 국비지원사업에 신청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군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울주군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군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은 행정 직역에 일부 민간위탁 방식이 검토된다. 시설 관리와 인증 등은 군이 맡고, 저장·가공·유통 부문은 민간에 위탁한다.

최병문 울주군 농업정책과장은 "도농 간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울주군의 실정에 맞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로컬푸드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일련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용역 내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bong@ksilbo.co.kr

U울산매일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006면 종합



지난24일 울주군 온양읍 신청사 광장에서 열린 온양읍 신청사 개청식에서 김기현 시장, 윤시철 시장의, 신장열 울주군수, 한성울 군의장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온양읍 신청사 준공... 연면적 2,750㎡ 규모

사랑방·도서관·옥상정원도 갖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신청사가 준공됐다. 26일 울주군에 따르면 온양읍 남창1길 20일대에 건립된 온양읍 신청사는 부지면

적 7,569㎡ 연면적 2,75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다.

1층은 사무소와 온양사랑방, 2층은 작은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3층은 대강당과 옥상정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꾸려졌다.

부지보상비 26억, 공사비 75억, 설계 및 기타 9억원 등 총 공사비 110억원을 들여 조성된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착공해 최근 준공했다.

지난 24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기현 시장을 비롯해 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주성미 기자 jsm3864@iusm.co.kr

경상일보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003면 종합

작과천 전역 캠핑지구로 거듭난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메카인 북합천권역의 전역으로 일원이 위치한다. 지역 주민이 캠핑지구로 거듭난다. 호암인 등

학교 주변에 국한했던 캠핑장이 작과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캠핑객들의 편의 증진에 따른, 산악관광문화의 거점 조성에 따른 영남알프스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28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산악관광 특화지역의 일환에 위치한다. 작과천 캠핑벨트사업의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불제를 완료한 군은 지난 28일부터 총사업비 100%로 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개찰한 뒤 공사입찰을 선정해 12월 중에 착공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5년 개장한 작과천 캠핑벨트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확충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온양읍 280㎡와

대곡캠핑장 280㎡ 등 총 460㎡의 작과천 캠핑벨트사업장을 138면 규모로 확충할 예정이다.

동쪽과 일원에 위치한 아열대성 기후 특성의 아열대성, 아열대성, 아열대성 등 총 38면의 아열대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편의시설로 편의성은 손쉬운 우스 지구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북촌 규모의 편의시설, 편의시설 100여 개를 들어선다.

전 캠핑장의 아열대성에는 산악관광 특화 사업이 들어선다. 가로 8m, 세로 5m 규모의 대형 캠핑대크 18면과 가로 6m, 세로 4m의 캠핑대크 18면 등 총 36면 규모의 캠핑대크를 만들고 화장실과 샤워장, 세척장 등 편의시설도 조성한다.



군, 작과천캠핑벨트사업 확장 추진

캠핑장 45→138면 규모로 확대

복합 캠핑하우스·글램핑장도

내일 공사입찰 선정 12월 착공

영남알프스 관광 활성화 기대

작과천 전역에는 숲소와 글램핑지구를 만든다. 별도의 야영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글램핑장 128면을 짓고 작과천에는 소규모 숲소야영도 만들어 줄 것이라며 확충한다.

수남지구 인근에는 달빛야영지구를 조성한다. 가로 10m, 세로 8.5m의 야영장 30면을 조성하고 캠핑대크와 작은 계곡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작과천에서 캠핑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새로 만들고 작과천

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출입도로로 만들기로 했다.

군은 동쪽과 상류에 추진 중인 동쪽 아열대성 일원에 사실상 최대의 편의를 캠핑지구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도캠핑장이나 태극 캠핑장 외에 캐빈하우스와 글램핑장을 조성해 장비를 갖춘 캠핑족 이외의 시민들도 손쉽게 자연 속에서 숙박을 즐길 수 있게 한다.

군은 총 사업비 100여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께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계획을 공사기간은 12개월이지만 캠핑 상수기인 여름에 맞춰 개장하기 위해 준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캠핑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야영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화산사업을 추진했다"며 "영남알프스의 자정인 북합천권역 전역으로 산악관광의 거점을 조성,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bong2000@kjb.co.kr

울주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전기차 9대 보급

울산 울주군은 지난 8일 군청 앞마당에서 신장열 군수를 비롯한 9개 읍·면장, 맞춤형 복지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된 전기차 9대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 복지허브화 지역인 온산·온양·언양읍, 서생·청량·웅촌·상북·삼남·삼동면에 보급됐다. 군은 지난해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인 범서읍에 먼저 차량을 보급했고, 내년에는 두동·두서면에 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군은 차량 외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 호출과 현장 상황 녹취, 위치 정보 확인,



울주군은 지난 8일 군청 앞마당에서 신장열 군수와 9개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음성 통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위치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들을 신속히 발굴해 위기 상황에 노출되는 가구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울주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최우수'

울주군은 2017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가운데 12일 부군수실에서 이경결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복지행정상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은 2017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문

경상일보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002면 종합

울주산악영화제 사단법인 내년 2월 공식출범

울산시 허가 받고 최종판문 통과

빠르면 오늘 행정절차 마무리

사무국장·총무 각 1명 연내 선발

내달 이사회 열고 법인규정 의결

영화제 전문·독립성 확보 기대

울산 울주군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세계 3대 산악영화제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사단법인 설립이 울산시의 허가를 얻고 최종 판문을 통과했다. 군은 이달 중으로 조직의 핵심인 사무국장을 선임한 뒤 내년 2월까지 법인설

출범하고 올해 영화제부터 사단법인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은 지난 11일 울산시로부터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설립을 허가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15일 울산지법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접수했고 빠르면 19일께 등기 절차를 마친 뒤 울산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거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군은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 조직 구성을 위해 사무국장과 총무에게 직인 각 1명을 연내에 선발할 예정이다.

법인 초기 설립에 따른 보은인사 논란과 관련, 군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전

주국제영화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채용 기준을 제시했다. 사무국장급인 1-2급의 경우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영상문화 산업 및 예술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10년 이상 경력자' 등의 자격기준을 내걸었다.

법인은 이사 22명과 감사 1명, 일반회원 16명 등 39명으로 이뤄진다. 사무국은 추진위원장을 맡아 법인화를 이끈 박재동 집행위원장을 야예 1국 2심 6팀으로 구성된다. 비상근직 일부를 포함해 15-22명 규모로 구성된다.

또 전문위원급인 프로그래머를 별도로 두고 테마 및 작품 선정 등 전반적인 방향 설정을 맡기로 했다.

사무국장 산하에는 기획마케팅실과 프로그램실이, 각 실에는 운영지원팀과 사업마케팅팀 등 6개 팀이 포진한다. 군은 내달 17일께 이사회를 열고 법인 규정을 의결한 뒤 1월 중으로 프로그래머와 실장, 팀장 등을 채용해 조직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제3회 영화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월 중순께 정기총회를 열고 기본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영화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며 "법인설립 5년후 국비 지원도 가능한 만큼 경제적 독립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봉기자

울산매일

울주군 '청량면 신청사 시대' 개막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008면 종합

“50여년 더부살이 마감... 제2 도약 위해 힘차게 비상”

울산 울주군이 50여년 더부살이를 끝내고, 제2시대를 열었다.

울주군은 26일 청량면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울주군청 이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작은 물품을 옮기던 사전 이사를 제외하고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시 첫날인 22일 오후에는 남구 옥동의 옛 청사에서 환송행사가 열렸다. 이삿짐과 함께 든 옮기기를 함께 실은 차량을 직원들이 손을 흔들어 신청사로 떠났다. 신청사에서는 풍물자신놀이와 액막이 행사, 입주교유제 등이 열렸다.

이날 신청장 군수는 총무과장에서 직인을 전달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더부살이로 시작했던 울주군의 역사는 50여년을 훌쩍 넘겼다.

경상남도 울산군 시절, 현재 중구 북평동의 동원과 인근 건물 2곳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2년 6월 1일 울산군은 울산시와 울주군으로 분리됐고, 울산시는 현재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로, 울주군은

중구 북평동 동원을 사용했다. 이후 1979년 3월 1일 남구 옥동의 옛 청사로 이전했다. 그 사이 울주군은 다시 울산군이 됐다. 울주군이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울주군이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울주군의 옥동 청사 더부살이는 그 후로도 20년간 더 이어졌다.

울주군 주민들을 위한 울주군청이 지역 주민들이 있는 제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남구 옥동에 있는 탓에 남구청 민원을 듣고 울주군청을 찾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지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오가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늘어났다. 울주군의 인구 등 규모가 커질수록 청사의 업무 공간도 좁아졌다. 바람을 세우다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은 군청에 의도도 이 건물, 저 건물을 옮겨다녀야만 했다.

사북, 통남 등으로 옮겨 나갔던 울주군의 지리적 특성상 모든 지역 주민들의 접근을 만족시키기 어려웠지만, 오랜 노력



지난 22일 울주군 신청사 앞에서 열린 신청사 이사 기념행사에서 신청장 울주군수, 현상 울주군의회 의장, 이경일 울주부군수, 군의원 등 내빈들이 액막이 액막이를 하고 있다.

끝에 지금 울주군 청량면에 자리를 잡았다.

울주군의 신청사 시대 개막은 3천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신청장 울주군수의 마지막 업적이기도 하다.

신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실하게 세워졌다"며 "신청사 시대의 개막으로 울주는 제2의 도약으로 힘차게 비상할 때"라고 말했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본

관동과, 지하1층 지상 4층의 의사당으로 조성되었다.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울주군의 대표전하는 204-1000이다.

주성민 기자 jsc384@hanmail.net

